

2010년 6월 농식품 해외시장 동향

2010. 7

- 목 차 -

- 일본(도쿄 aT) -----	3
- 중국(베이징 aT) -----	16
- 홍콩(홍콩 aT) -----	26
- 미국(뉴욕 aT) -----	39
- 동남아(싱가포르 aT) -----	53

해외시장동향	일본	도쿄 aT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일본 구제역, 감염확대

- 일본 농수성과 미야자키현은 6월10일, 미야코노조시 타카사키초의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으로 보이는 비육우 3두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라고 발표.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 현은 검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살처분. 비육우 208두를 살처분함. 일본내 최대규모 축산지의 같은 시에서 구제역의 유사 발생을 확인한 것은 처음임
- 감염 확대가 확인되면서 인접하고 있는 카고시마현도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 방역강화를 시작. 같은 날, 지금까지 감염이 없었던 미야자키시, 휴우가시에도 유 발생 확인
- 미야코노조시는 미야자키현의 축산 중심지로, 시내에는 번식우 2100가구, 비육우 150가구, 낙농 160가구, 양돈 150가구가 축산업 종사. 가축은 소 약7만두, 돼지 약40만두를 기르고 있음. 2006년 생산액은 일본 제1위로 축산업가와 관계자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구제역이 확대된 것에 대해 현은 10일, 발생농장에서 반경 10킬로미터 권내의 이동제한구역과 20킬로미터 권내의 반출제한구역을 설정. 방역장소도 발생농장 부근에는 기존 1개소에 더해 2개소를 신설하고 10킬로미터권을 경계로 새롭게 12개소를 설치했음
- 미야코노조시 이외에서 같은 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가축에 새로운 유사발생 확인 된 건은 미야자키시의 양돈경영(1325두), 휴우가시의 비육우 경영(349두), 사이토시의 비육우 경영(550두)임. 동시에 인접 카고시마현도 구제역 대책을 시작함

-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6.11

□ 일본 미네랄워터 소비성향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편화된 미네랄워터는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을 그대로 용기에 담은 상품이 주류. 술이나 청량음료에 비해 특색을 나타내기 어렵지만 일경산업지역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연령층에 따라 기호가 다르고 소비자가 엄격히 상품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마크로빌이 5월에 인터넷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20-69세의 남녀 1000명이 회신) 미네랄워터를 [자주 애용]하는 사람과 [가끔 음용]하는 사람의 합계는 52.4%로 반수를 넘었음
- [가능한 맛있는 물을 사용하고 싶다](37.4%)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건강에 좋을 것 같다](28.8%). 물의 맛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매연령은 20대가 56.5%로 자택 뿐 아니라 외출시 마시는 경우가 많음. 반대로 가장 낮은 구매 연령층은 40대로 50% 미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에 41.1%가 응답
- 미네랄워터 1주간 지출액은 [500엔 미만]이 59.5%로 가장 높고 다음이 [500-1000엔](26.1%)으로 전체의 80% 이상이 1000엔 미만
- 최근 반년동안 구입경험이 있는 제품을 복수 대답 받은 결과, 1위는 산토리식품의 [천연수](34.4%), 2위는 아사히음료의 [롯데(六甲)의 맛있는 물](32.6%), 이하 코카콜라 그룹[이로하스](27.9%), 기린 비바릿지 [VOLVIC](24.8%)로 이어짐
- 앞으로 사보고 싶은 제품(1제품 선택)에서도 상기의 4상품이 상위였지만 순위는 연령대에 따라 다름. 20, 30, 40대의 1위는 [이로하스](20대 20.5%). 용기에 식물성 소재를 일부 사용하여 경량화 하는 등 친환경 재질이 젊은 세대에 호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임. 50대의 1위는 [천연수] (17.0%), 60대는 [롯데(六甲)의 맛있는 물](17.5%)로 오래된 인기상품들이 차지

- 자료원: 일경MJ신문 6.2

2. 일본의 현지 유통시장 동향

□ 주요도매시장 채소류 동향 (2010년 6월 상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합계			전년 동기 대비	
	도매수량	도매가격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야채 총계	97,398	23,177,701	238	96	117
무	7,008	650,615	93	106	115
당근	5,247	765,553	146	103	130
배추	5,824	419,202	72	96	111
양배추	10,898	1,185,650	109	82	151
시금치	1,124	557,475	496	93	117
파	2,562	1,132,865	442	104	99
부추	617	188,173	305	104	107
아스파라거스	629	633,045	1,006	94	105
(수입산)	14	12,610	927	70	110
브로콜리	1,334	457,274	340	96	108
(수입산)	242	66,866	277	130	103
양상추	4,763	984,453	207	85	151
오이	6,213	1,593,244	256	111	125
단호박	2,376	575,223	242	91	123
(수입산)	1,323	259,468	196	109	158
가지	3,343	1,092,137	327	101	105
토마토	5,439	1,786,244	328	96	122
미니토마토	1,145	588,871	514	98	117
피망	1,831	695,427	380	94	127
파리 고추	134	133,607	1,000	86	110
풋콩	141	187,601	1,328	59	133
감자	8,712	1,800,295	207	104	136
양파	12,430	1,211,840	97	99	107
(수입산)	364	34,583	95	143	114
마늘	273	157,852	578	94	94
(수입산)	120	28,048	234	95	168
표고버섯	530	405,142	765	106	93
(수입산)	23	8,961	398	90	116
팽이버섯	625	221,523	354	106	92
(수입산 야채총계)	3,243	703,420	217	118	116

□ 주요도매시장 과일류 동향 (2010년 6월 상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전년 동월대비	
	도매수량	도매금액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과실 총계	27,526	9,624,563	350	89	110
국산과실 합계	17,549	7,553,006	430	82	119
밀감	440	435,748	991	125	92
아마나츠 밀감	1,204	179,698	149	123	103
기타 밀감	617	159,638	259	89	98
사과 합계	2,712	931,864	344	83	126
(츠가루)	-	-	-	-	-
(조나골드)	471	156,979	333	81	126
(왕립)	474	143,688	303	79	126
(후지)	1,694	609,392	360	85	127
일본 배 합계	2	2,488	1,571	128	89
(풍수)	-	-	-	-	-
(이십세기)	-	-	-	-	-
(신고)	-	-	-	-	-
감 합계	-	-	-	-	-
(단감)	-	-	-	-	-
(맹감)	-	-	-	-	-
매실	1,974	884,622	448	90	113
포도 합계	440	582,794	1,324	74	113
(거봉)	60	104,230	1,730	85	107
밤	0	15	1,512	8	180
딸기	723	561,063	776	116	100
메론 합계	3,156	1,426,383	452	64	148
(온실 메론)	450	257,057	572	96	113
(안데스 메론)	744	344,330	463	66	155
수박	5,352	1,203,803	225	82	126
수입과실 합계	9,977	2,071,556	208	104	92
(바나나)	4,799	680,132	142	97	88
(오렌지)	923	164,867	179	89	99
(수입키위)	610	300,347	492	87	101
(수입멜론)	261	21,660	83	141	89

3.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농림수산물 수입개요

- 10년 1-4농림수산물 수입액 : 2조2,418억엔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 국가전체 수입액(19조5,223억 엔)의 약 11.5%점유
 - 비중별: 농산물(1조 5,548억 엔, 52.2%)
 - 수산물 (4,034억 엔, 17.1%)
 - 축산물 (3,832억 엔, 12.7%)
 - 임산물 (2,836억 엔, 18.0%)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실적(금액기준)>

(단위: 천엔, %)

구 분	2010년1-4월		전년 동기 대비	2009년1-4월
	금액	점유비		
국가 전체	19,522,333,386	-	20.2	16,239,410,496
농림수산물	2,241,774,150	100.0	1.2	2,216,001,192
농 산 물	1,170,784,740	52.2	3.8	1,128,462,336
축 산 물	383,160,507	17.1	-2.8	394,328,017
임 산 물	283,600,775	12.7	2.1	277,888,141
수 산 물	403,356,340	18.0	-2.7	414,705,465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동향(1~4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	1~4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박	2,200	2,304	-4.5	한국	2,200	-	-	-	-
멜론	1,091,716	1,393,616	-21.7	멕시코	1,005,304	한국	54,585	뉴질랜드	31,827
밤	375,005	344,989	8.7	중국	360,440	한국	10,816	이탈리아	3,749
키위	2,936,444	2,689,874	9.2	뉴질랜드	2,915,890	칠레	20,279	한국	275
딸기	13,615	19,414	-29.9	한국	13,615	-	-	-	-
귤	1,029,260	931,360	10.5	미국	1,015,251	뉴질랜드	13,024	한국	985
매실 (조제품)	809,601	691,037	17.2	중국	805,703	대만	2,813	한국	1,085
마늘	929,918	505,692	83.9	중국	915,858	한국	7,063	아르헨티나	6,997
결구양배추	286,480	281,230	1.9	중국	122,376	한국	118,550	대만	45,149
오이	4,661	7,592	-38.6	한국	4,661	-	-	-	-
가지	8,581	23,683	-63.8	한국	8,581	-	-	-	-
피망 속	3,296,308	3,032,989	8.7	한국	1,890,599	뉴질랜드	1,170,355	네덜란드	229,071
파프리카	3,156,594	2,908,903	8.5	한국	1,753,948	뉴질랜드	1,168,930	네덜란드	227,433
건 표고	2,241,181	1,785,468	26.5	중국	2,177,640	한국	63,014	홍콩	301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10년도 4월) 수입액

- '10년도 1-4월의 일본국가전체 수입액(19조5,223억 엔)중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2조 2,418억 엔으로 수입액 전체의 약 11.5%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 토마토 수입동향

- 4월 수입수량은 146톤으로 전년 동월 비 24톤(14%) 감소함
수입금액은 50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345엔으로 전년 동월보다 13엔 하락함
주요수입국 비율은 한국 52%, 뉴질랜드 33%, 캐나다 8%, 미국 6%, 멕시코 2%
- 4월누적 수입량은 1,398톤(전년 동기 비 271%), 수입액은 5억 60백만 엔(전년 동 대비 362%)
- 작년도 상반기는 잔류농약 검출로 수입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도는 수입회 복
- 한국산은 대부분 신선형태로 수입되며, 일본의 안전성강화, 한국내 수요증가 등에 따라 감소경향
· 수입실적 : ('09.1~4) : 221,237천엔 → ('10.동기) : 95,901천엔(56.7%↓)

□ 가지의 수입동향

- 4월의 수입물량은 0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28톤(100%)감소하였음.
- 4월까지의 수입물량은 34톤(전년 동기 비 28%), 수입금액은 9백만 엔(동 29%)으로 나타남
- 한국산 가지는 일본의 안전성강화, 일본의 야채 소비량 감소로 수입 감소경향
· 수입실적 : ('09.1~4) : 29,515천엔 → ('10.동기) : 8,581천엔(70.9%↓)

□ 파프리카 수입동향

- 4월의 수입량은 1,851톤으로 전년 동월 비 231톤(11%) 감소하였음. 수입액은 9억98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539엔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보다 134엔 감소함
주요수입국은 한국 55%, 뉴질랜드 28%, 네덜란드 17%
- 4월 도쿄도중앙도매시장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한국 47%, 뉴질랜드 29%, 네덜란드 23%, 미국 1%, 5월은 한국산 83%, 네덜란드 12%, 뉴질랜드 4%, 미국 1%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10년 4월 ~ 5월의 외국산 입하 상황>

구분	'10년 3월			'10년 4월		
	상	상	상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75	54	64	56	116	151
일본산 등 입하량(톤)	22	19	26	23	29	38
외국산도매가격(엔/kg)	639	750	873	734	460	355
평균도매가격(엔/kg)	699	807	895	758	498	392

- 4월까지의 수입물량은 6,576톤(전년 동기 비 97%), 수입액은 31억57백만엔(동109%)임
- 한국산 파프리카는 동절기 파프리카 일조량 부족 및 단가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하락
· 수입실적 : ('09.1~4) : 1,777백만엔 → ('10.동기) : 1,754백만엔(1.3%↓)

□ 딸기 수입동향

- 4월 수입량은 없었음. 4월누적 수입수량은 21톤(전년동기비 60%), 수입가격은 14백만엔(전년동기비 70%)임
- 한국산 신선딸기는 주로 케이크 장식용, 후식용으로 사용되나 일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수입하락
· 수입실적 : ('09.1~4) : 19,414천엔 → ('10.동기) : 13,615천엔(29.9%↓)

□ 양배추 등 유채 속 야채

- 4월 수입량은 2,971톤으로(양배추: 2,895톤, 기타 유채 속: 76톤) 전년 동월 대비 649톤(28%) 증가하였음. 수입액은 1억 30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44엔으로(양배추: 42, 기타 유채 속: 124) 나타나 전년 동월 대비 2엔 하락함. 양배추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 57%, 한국 30%, 대만 13%임
- 식물검역 통계에 의하면 양배추의 5월 검사실적수량은 2,889톤(전년 동월 비 194%)으로 나타남
5월의 주수입국 비율은 중국 81%, 대만 11%, 한국이 8%로 나타남
- 배추의 수입식물 검역검사 동향
식물검역통계에 의하면 5월 검사실적수량은 0.4톤(전년 동월 비 489%)으로 나타남
주요 수입국 비율은 중국 89%, 한국 11%로 나타남
- 양배추 등 유채속의 4월누적 수입량은 7,757톤으로(전년 동기대비 90%), 수입액은 3억 12백만 엔(동 101%)으로 나타남

□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동향(1~4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	1~4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닭고기 조제품	39,468,823	42,814,561	-7.8	태국	21,702,045	중국	17,510,316	한국	140,995
정제당	190,712	88,630	115.2	브라질	125,244	한국	49,147	프랑스	10,240
유잉겔	47,5182	57,652	-17.6	중국	23,241	한국	8,038	태국	5,800
쿠키, 비스킷 크래커	2,226,936	1,944,563	14.5	미국	337,439	한국	212,271	말레이 시아	199,706
코코아 조제품	770,670	565,049	36.4	싱가폴	549,231	한국	133,183	말레이 시아	51,277
알콜음료	48,943,855	49,342,737	-0.8	프랑스	18,194,507	한국	5,441,101	미국	4,690,518
쇼트닝	74,042	80,085	-7.5	말레이 시아	51,658	한국	15,597	인도네 시아	6,787
조제 식료품	27,695,657	27,628,859	0.2	미국	6,901,026	한국	3,641,807	중국	3,599,819
곤약	704,318	741,3225	-5.0	중국	622,226	인도네 시아	41,010	한국	39,828
인삼	531,039	561,963	33.9	중국	516,281	대만	12,183	한국	2,332

□ 가공식품의 수입동향(10.4월)

- 가공식품(종합)의 4월 수입수량 지수¹⁾는 100.9로 전년 동월 대비 10.0%로 증가함. 가공식품(주류 제외)은 98.5로 전년 동월 대비 △9.8%로 다소 감소함
- 가공식품(종합)의 4월 수입액은 1,20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로 상당히 증가하였고, 주류를 제외한 가공식품은 1,05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로 역시 상당히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 보면 당류, 과자가 16% 이상, 수산가공품, 주류가 11~16%, 축산가공품, 곡물가공품이 6~11% 증가하였으며 농산가공품이 3~6% 미만 증가하였음. 한편, 음료류는 11~16% 감소하였음

□ 일본 절임류 및 김치 생산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년	2010년 4월
절임류	1,176	1,186	1,184	1,131	1,032	972	974	956	950	910	295
김치	320	351	386	379	313	284	252	243	237	209	67
(%)	(27.2)	(29.6)	(32.6)	(33.6)	(30.3)	(29.2)	(25.8)	(25.4)	(24.9)	(23.0)	(22.7)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 일본 절임류 품목별 생산량

(단위: 톤)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	증감율
절임류 전체	1,032,877	972,947	974,809	956,836	950,164	910,051	294,966	-1.8
소금절임류	149,450	129,279	146,827	135,871	130,707	132,068	41,671	0.1
초절임류	105,372	94,359	102,450	99,549	100,083	99,190	30,511	0.4
아사즈케류	148,031	149,082	154,470	158,010	155,478	155,672	50,599	-0.4
쌀겨절임류	74,440	73,536	80,236	81,094	85,151	82,978	28,011	-1.1
간장절임류	496,491	466,037	433,302	425,309	423,467	389,857	128,626	-3.9
(김치)	(313,410)	(284,914)	(252,123)	(243,028)	(237,937)	(209,235)	66,905	-7.7
주박절임류	35,669	37,665	34,983	34,508	35,099	32,310	10,219	6.1
원장절임류	9,047	8,044	7,974	8,008	7,632	7,450	2,353	-0.9
기타절임류	14,377	14,945	14,567	14,486	12,546	10,527	2,976	-7.0

자료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주) 쌀겨절임류: 단무지포함

1) 수입수량지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100) 수입증감에 따라 변화하는 수치임

□ 일본의 김치 공급

(단위 : 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4
합계	316,067	274,749	265,113	261,001	233,358	77,510
일본산	284,914	252,123	243,028	237,937	209,235	66,905
한국산	31,153	22,626	22,085	23,064	24,123	10,605
기타국*	?	?	?	?	?	?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일본 재무성 통계자료

* 세번 2005.99-919, 2005.99-999는 기타 절임류로서 한국산은 대부분 김치이나, 기타국 생산김치량은 김치외 다량의 기타절임류 포함되어 있어 통계상 타국산 순수 김치시장 규모 추정 곤란

□ 한국산 김치 수입실적

(단위: 톤, 백만엔, 엔/kg)

연도	수입량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단가
1997	10,826	7.9	4,580	11.0	423
1998	15,015	38.7	5,576	21.7	371
1999	23,905	59.2	8,931	60.2	374
2000	22,260	-6.9	8,410	-5.8	378
2001	22,197	-0.3	8,092	-3.8	365
2002	27,351	23.2	9,486	17.2	347
2003	30,854	12.8	10,349	9.1	335
2004	32,202	4.4	10,435	0.8	324
2005	31,153	-3.3	9,817	-5.9	315
2006	22,626	-27.3	7,468	-23.9	330
2007	22,085	-2.3	7,522	0.7	340
2008	23,064	4.4	7,940	5.5	344
2009	24,123	4.6	7,530	-5.2	312
2010년1-4월	10,605		3,314		312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주의: 순수 한국산 김치의 수입통계는 세분되고 있지 않아 세번 2005.99-919, 2005.99-999를 합산하여 만든 수치임

□ 일본의 절임류(김치포함) 수입동향

(단위 : 톤, 백만엔)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33,661	26,308	113,433	22,455	120,616	21,709	54,348	7,777
한국	22,085	7,522	23,064	7,940	24,123	7,530	10,605	3,314
기타국	111,576	18,786	90,369	14,515	96,493	14,179	43,743	6,450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4. 경제동향

□ 경기동향

- 경기는 착실히 회복되고 있으며 자율적 회복기반이 정비되고 있으나 실업률이 고 수준에 머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은 개선되고 있음.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 기업 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의 기업전망은 신중한 견해가 많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어려우나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물가동향을 종합해 보면 완전한 디플레이 상황에 있음
- 향후전망 : 당분간 어려운 고용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해외경제의 개선과 긴급경제대책을 비롯한 정책효과 등을 배경으로 기업수익의 개선이 계속 되는 가운데 경기의 자율적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경기하락 염려, 금융 자본시장의 변동, 디플레이 영향 등, 경기하락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정세의 악화우려에도 주의가 필요함

□ 정책동향

- 일본정부는 새로운 수요와 고용의 창출에 의해 일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성장력 제고를 위해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체계와 정책이념에서 일본경제를 본격적으로 회복궤도에 올림과 동시에 디플레이션 종식을 위한 정책운영을 실시
-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긴요한 과제로 삼아 일본은행과 일체가 되어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책노력을 시행예정.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와 거시경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 시점을 공유하고, 디플레이션 종결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 기대함. 일본은행은 6월 15일 성장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의 체계 도입 결정

□ 소비·투자 등 수요동향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설비투자 감소가 둔화되고 있음
- 주택건설은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보험세를 보임
- 공공투자는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수입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 서비스 수지흑자는 보험세를 보임

□ 기업 활동과 고용정세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 및 기업의 업계전망은 개선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신중한 견해가 많음. 도산건수는 대체로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물가와 금융정세

-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다소 하락이 계속되고 있음
- 주가는 9,900엔대까지 상승한 후 9,400엔대까지 하락, 이후 10,000엔대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엔/달러 환율은 90엔대에서 92엔대까지 엔화 가치하락 기조로 이동하였다가 91엔대로의 변화 추이를 보임

자료: 2010년 6월18일 내각 부 발표

해외시장동향

중국

베이징 aT

1. 현지 시장 포커스

□ 올 하반기 중국 설탕가격 하락 힘들 것으로 전망

6월부터 중국 내 설탕이 계절성 소비호황기에 접어들었음. 발해증권 소속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계절성 요인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설탕 가격이 현재 가격수준에서 상승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함. 보고서는 설탕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높은 수위에서 파동을 보이며 가격대는 4,500위안-5,500위안/톤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발해증권 소속 연구원은 국내 설탕시장가격에 영향 주는 주요 요소는 소비상황과 설탕 원료 작물의 재배면적이라고 지적. 현재 설탕 원료가 되는 작물의 국내 파종면적은 확대기미가 없으며 안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 시장소비상황이 설탕시장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요인이 되고 있음

올해 들어 시장 설탕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전략비축 설탕의 시장 투입을 늘렸고 해외수입을 늘렸음. 2009년 12월부터 중국정부는 수차례 전략비축 설탕을 시장에 투입해 공급물량을 늘렸음. 올해 5월까지 중앙정부는 총 122만 톤의 비축설탕을 경매를 통해 시장에 투입해 설탕의 시장가격상승을 제한함. 곧 다가오는 새로운 수확계절에 설탕의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인도의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국제시장 설탕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내시장의 설탕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내 식품업계, 음료수 업계, 의약업계가 설탕에 대한 수요량이 중국 내 전체 설탕 수요량의 65% 차지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중국 내 식품가공과 음료수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고 약 10년간 설탕소비량이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음. 이 두 업종의 빠른 성장으로 국내 설탕소비량은 안정가운데서도 빠른 증가를 보여 왔으며 국내 생산량 대비 시장수요량 부족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음.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수요량의 끊임없는 확대에 따라 중국이 이제 곧 설탕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며 이로 인해 국내 설탕가격의 상승과 높은 수위 유지에 큰 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국내시장의 설탕공급 부족국면이 되면 설탕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일부 상품에 대한 수출환급세 취소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6월22일 공동으로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세 취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음

2010년 7월15일부터 수출환급세가 취소되는 제품은 일부 철강, 유색금속가공재료, 분말 알루미늄, 고무,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그중 에틸알코올, 옥수수전분, 농약 등 일부 농산품에 대한 수출환급제도 취소됨

농산품 가격 상승을 경험했던 중국이 일부 농산품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취소함에 따라 농산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중국 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정평전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재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옥수수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 내 수요도 크게 증가해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농산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언급함

2. 시장동향

□ 미국, 대중국 대두유 수출 확대

세계 최대 대두유 수입국인 중국이 대두의 대량 수입과 달리 과거 미국으로부터의 대두유 수입은 줄곧 작은 규모를 유지했었으나 차츰 변화를 보이고 있음

중국내 대두유 관련 전문연구소인 구삼유지(九三油脂)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은 지난번 중국과 전통 주요 대두유 수입국인 아르헨티나 간 대두유 관련 무역마찰이 일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산 대두유가 중국 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산 대두유 수입규모가 과거대비 크게 줄었고, 이를 미국산이나 브라질산 대두유로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

대두유는 중국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중국의 대두유 수요량은 거대한 수준임. 2009년도 중국의 대두유 수입량은 250만 톤 수준이며 중국국가양유정보센터의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대두유 수입량은 14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대두의 수입량은 2009년의 4,100만 톤 수준에서 4,750만톤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베이징소재 농산물전문 연구자문회사인 布瑞克(북경)농업자문회사 수석연구원은 현재 중국 내 생산되는 대두유와 부족부분으로 수입하는 각종 식용유는 여전히 증가되는 소

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미국 농업부는 미국 대두유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두유에 임시로 식품검역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임. 이는 중국이 해외 대두유 수입 시 반드시 해당 국가가 발급한 식품검역증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임

미국은 전통적으로 수출업체에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으로의 대두유 수출규모 확대에 편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중국으로의 대두유 수출확대에 불리한 소식으로 되는 것은 아르헨티나와 중국 간 대두유 무역마찰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상태임

중국 정부는 대두유의 수입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한 과다 의존을 피하기위해 여러 국가에서 분산 수입하여 가격 폭등 등 무역리스크를 줄이고자 시도하고 있음. 따라서 대두와 대두유 전통 주요 수입국인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도매시장동향

<2010. 5월 중국 과일 도매현황>

(단위: 톤, 만위안, 위안/kg, %)

구분	신발지도매시장			전년동기대비 %	
	도매수량	도매금액	평균가	도매수량	도매금액
부사사과	97950	26626.3	2.71	82.3↑	38.8↓
압리(鴨梨)배	8330	1650.5	1.98	7.5↑	12.1↓
바나나	7440	3785.2	5.08	10.4↓	14.2↓
딸 기	3010	3143	10.4	37.2↑	44.9↑
거봉포도	-	-	-	-	-

<2010. 5월 중국 채소 도매현황>

(단위: 톤, 만위안, 위안/kg, %)

구분	신발지도매시장			전년동기대비 %	
	도매수량	도매금액	평균가	도매수량	도매금액
배추	15260	1330.04	0.87	50.8↑	42.4↑
당근	20140	2303.07	1.14	97.1↑	1.03↑
오이	14110	2640.35	1.87	8.9↑	0.3↑
고추	390	95.1	2.43	96↓	96.5↓
양파	22000	2713.55	1.23	13.7↓	65.6↓
생강	6880	4536.8	6.59	1.3↓	151.4↑
마늘	11820	8011.2	6.78	30.2↓	388↑
팽이버섯	620	477.4	7.7	275↑	249↑
파프리카	101	111	11	-	-

(자료원: 베이징신발지도매시장)

3. 수출입동향

□ 수출입 동향 개요

- 2010년 5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39.0억 달러로 전월대비 2.0억 달러 증가하여 5.3%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27.5% 증가함
- 2010년 1~5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177.9억 달러로 동기대비 22.2% 증가함
- 2010년 5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57.5억 달러로 전월대비 0.4억 달러 증가하여 0.7%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39.4% 증가함
- 2010년 1~5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265.2억 달러로 동기대비 42.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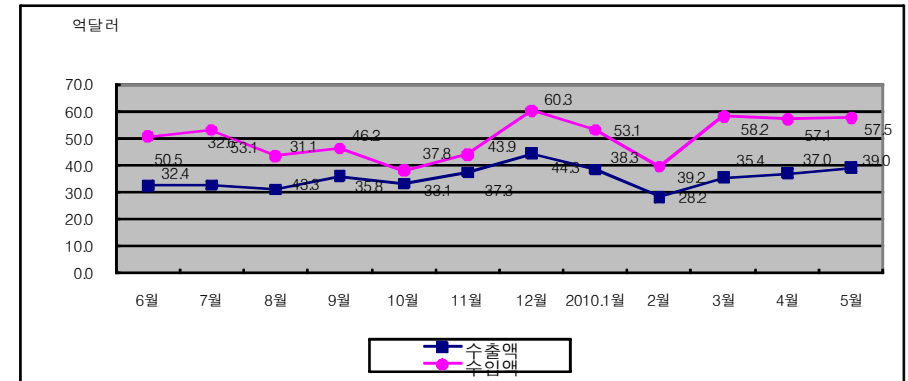
< 2010. 5월 중국 농산물 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구 분	5월 당월		1-5월 누계	
	금 액	전년동기대비(%)	금 액	전년동기대비(%)
◦ 수 출 액	39.0	27.5	177.9	22.2
◦ 수 입 액	57.5	39.4	265.2	42.1
□ 무역수지	-18.5	-	-87.3	-

자료원 : 중국상무부통계(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 중국의 월별 농산물 수출입 추이 >



□ 농산물 부류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품목부류	5월누계			품목부류	5월누계		
	2009	2010	증감		2009	2010	증감
산 동물	3,936	10,152	157.9	동식물유지 등	240,270	314,312	30.8
축산육류 및 잡육	27,952	34,527	23.5	육류제품	151	157	3.9
가금육 및 잡육	33,115	34,931	5.5	수산물제품	2,165	2,936	35.6
수, 해산물	129,758	168,864	30.1	당류제품	24,039	19,326	-19.6
유제품, 난류, 꿀 등	43,488	80,174	84.4	코코아, 그 제품	5,052	11,914	135.8
기타 동물산품	11,920	12,543	5.2	곡물, 전분제품 등	34,885	46,264	32.6
산식물 및 화훼	3,046	3,259	7.0	채소, 과일, 견과제품	12,409	15,100	21.7
식용채소	38,624	78,709	103.8	기타식품	16,935	24,054	42.0
식용과실 및 견과	69,509	90,352	30.0	음료, 술 및 식초	34,096	53,166	55.9
커피, 차, 조미향료	3,064	4,850	58.3	식품공업 잔류물	63,202	121,878	92.8
곡 물	34,390	53,107	54.4	연초 및 그 제품	30,704	24,822	-19.2
제분공업제품	9,623	18,969	97.1	기타농산물	208,479	455,204	118.3
유료, 볶료, 사료 등	777,671	957,421	23.1	가금류제품	37,069	40,122	8.2
식물액, 즙	4,881	5,148	5.4	축산제품	195,869	313,594	60.1
편직용 식물재료	2,491	9,946	299.3	-	-	-	-

□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만불)

구 분	2009 1~5월	2010 1~5월	증감(%)
◦ 과실 및 견과	65,779	87,593	33.2
- 칠 레	13,346	18,819	41.0
- 태 국	17,835	25,506	43.0
- 베 트 남	11,953	12,355	3.4
◦ 당 류	20,611	14,846	-28.0
- 쿠 바	9,106	10,687	17.4
- 한 국	1,846	3,460	87.4
- 태 국	3,706	266	-92.8
◦ 대 두	700,304	878,156	25.4
- 미 국	453,757	614,927	35.5
- 아르헨티나	63,557	18,344	-71.1
- 브 라 질	175,154	242,975	38.7
◦ 벼 와 쌀	7,551	10,916	44.6
- 태 국	7,491	10,471	39.8
- 라 오 스	33	79	143.8
- 베 트 남	13	336	2,418
◦ 면 화	72,264	237,805	229.1
- 인 도	8,432	94,044	1,015
- 미 국	42,186	80,502	90.8
- 우즈베키스탄	9,471	30,524	222.3
◦ 냉동어류	97,157	124,579	28.2
- 러 시 아	46,899	67,955	44.9
- 노르웨이	6,864	9,380	36.7
- 미 국	11,444	13,509	18.0

□ 한국산 수입동향

◦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품목	중국 총수입액		한국산 수입액		기타국 별 수입액('10.4누계)		
	'09.4누계	'10.4누계	'09.4누계	'10.4누계			
자당	16,544	26,888	13,979	27,894	태국 (1,469)	호주 (222)	영국 (945)
채소종자	18,641	28,280	517	735	일본 (5,389)	미국 (4,019)	태국 (2,500)
기타베이 커리제품	9,176	11,958	4,884	5,719	인도네시아 (2,419)	대만 (2,680)	말레이시아 (1,132)
라면	2,503	3,495	9,299	11,125	홍콩 (980)	일본 (552)	대만 (337)
맥주	10,497	13,418	821	568	대만 (1,390)	독일 (4,764)	프랑스 (1,420)
소주	4,457	3,910	1,544	1,549	대만 (356)	일본 (1,656)	호주 (190)
홍삼	1,504	2,019	986	1,636	북한 258	-	-
간장	2,870	5,404	425	577	일본 (3,376)	대만 (465)	싱가포르 (746)
팽이버섯	1,197	1,149	3,283	1,698	대만 (55)	-	-

※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해관에 타 HS 코드로 신고하여 한국수출실적보다 적음

◦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자 당 : (2009.4) 13,979천불 → (2010.4) 27,894천불 (99.5%증가)
- 10년 4월까지 중국의 한국산 자당 수입량은 42,076톤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7.3% 증가하였음.
- 중국 내 설탕 원료 생산량의 감소와 갈수록 증가하는 수요량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4월까지 수입액은 전년대비 99.5% 대폭 증가함
- 채소종자 : (2009.4) 517천불 → (2010.4) 735천불 (42.1% 증가)
- 한국산 채소종자는 우수한 품질로 중국에서 수요량이 많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당근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과 함께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베이커리제품 : (2009. 4) 4,884천불 → (2010.4) 5,719천불(17.1% 증가)
- 2010년 4월까지 한국산 베이커리제품의 수입액은 5,719천불로 지난 동기대비 17.1% 증가함
- 한국산 베이커리 제품은 우수한 포장과 품질로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 또한 현지산과 크게 차이가 없어 향후 상당기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대형유통매장에서의 적극적인 판촉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교민소비 위주에서 현지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라 면 : (2009.4) 9,299천불 → (2010.4) 11,125천불 (19.6%증가)
- 2010년 4월까지 한국산 라면의 수입액은 11,125천불로 동기대비 19.6% 증가함
- 중국의 라면 시장은 대만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생산 농심(한국독자기업)의 신라면 계열제품은 중국에서의 대폭적인 홍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음
- 한국산 수입라면은 현지산과 약간의 맛 차이가 있고 주로 교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현지진출 교민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증가 예상
- 맥 주 : (2009.4) 821천불 → (2010.4) 568천불 (30.9%감소)
- 중국은 맥주 브랜드가 많고 지방마다 자체 브랜드 맥주가 많아 대체로 자국산을 선호하는 편이며 한국산 맥주는 중국산 맥주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임.
- 수입산 맥주로는 독일산을 선호하며 특히 기타 수입산 맥주들은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나이트, 바, 술집 등 주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있는 반면 한국산 맥주는 주로 한국식당 및 한국술집 등 한국계 요식업소에서 제한되어 있음

- 소 주 : (2009.4) 1,544천불 → (2010.4) 1,549천불 (0.3% 증가)
- 한류, 한국드라마 영향으로 한국 소주를 한국의 대표 술로 인지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식당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남
-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소비층은 현지 교민과 교포로서 4월까지 수입액은 1,549천불에 달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홍 삼 : (2009.4) 986천불 → (2010.4) 1,636천불 (65.9% 증가)
- 한국산 홍삼은 현지에서 고려홍삼으로 홍삼의 최고급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현지 한국기업에서 중국 정부기관 및 바이어 선물로 홍삼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으로 소비량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4월까지 수입량은 1,636천불로 전년대비 65.9% 대폭 증가함.
- 간 장 : (2009.4) 425천불 → (2010.4) 577천불 (35.8% 증가)
- 현지인은 수입산 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 또한 우수한 자국산 유명 브랜드 제품의 간장을 선호하며 수입품으로는 일식당을 통하여 많이 알려진 일본산이 강세임
- 한국산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통해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저가 중국산과 고가 일본산 사이에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고전중임
- 팡이버섯 : (2009.4) 3,283천불 → (2010.4)1,698천불 (48.3% 감소)
- 2010년 4월 팡이버섯 수입량은 1,698천불로 지난 동기대비 48.3% 대폭 감소함
- 중국의 팡이버섯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국내 판매가격 하락

4. 경제전망

□ 중국 5월까지 수출입총액 11,000.9억 달러, 전년대비 44% 증가

2010년 5월까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1,000.9억 달러로 전년대비 44% 증가함. 그중 수출액은 5,677.4억 달러로 33.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5,323.5억 달러로 57.5% 증가하여 353.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냄

2010년 5월 수출입 총액은 2,439.9억 달러로 동기대비 48.4% 증가함. 그중 수출액은 1,317.6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5%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122.3억달러로 48.3% 증가함

<2010. 5월 중국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5월 당월		1-5월 누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 수출입총액	2,439.9	48.4	11,000.9	44.0
수 출 액	1,317.6	48.5	5,677.4	33.2
수 입 액	1,122.3	48.3	5,323.5	57.5
□ 무 역 수 지	195.3		353.9	

자료원: 중국상무부

□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기대비 3.1% 상승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3.1% 상승함. 그 중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상승하고 농촌 소비자물가지수가 3.3% 상승함

품목별로 볼때 식품류 가격이 6.1% 상승하였고 담배, 술 및 관련 제품 가격이 1.7% 상승하였으며, 의복류 가격이 1.2% 하락함. 가정용 설비용품 및 가공정비서비스 가격이 0.3% 하락하였고,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류가 3.2% 상승하였으며 교통 및 통신류 가격이 전년대비 0.1% 상승함.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류 가격이 0.6% 상승하였고 거주류 가격이 5.0% 상승함

1-5월 누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함

해외시장동향	홍콩	홍콩 aT
--------	----	-------

1. 현지시장 포커스

□ 홍콩 식품 수입동향

- 홍콩은 국토면적이 작고 자체 생산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10년 5월까지 홍콩 농수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US\$6,401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0.5%가 증가했으며, 기타 육류 및 내장이 전체의 2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이어 과일류, 수산물, 가공식품 등이 있음
- 품목별로는 소고기 및 곡류가 35% 이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미국, 브라질, 일본, 태국 등이 있으며, '10. 5월 까지 수입액은 중국이 전년 동기대비 9.4%가 증가한 1,277백만 불로 가장 많으며, 특히 미국은 과일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59.6% 증가한 1,045백만 불 집계됨
- '10. 5월까지 한국산 수입액은 73백만 불로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

□ 홍콩 생산동향

- 홍콩 농수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약 US\$70백만 불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홍콩 정부에 의한 농수축산물 생산액은 연간단위로만 집계·공개되고 있음
- '09년 생산액은 HK558백만 불로 전년 생산액 HK687백만 불대비 23.1% 감소함
- 주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채소류, 가금류, 가축류(돼지)가 있으며, '09년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 대비 각각 2.4%, 가금류 53.7%, 6.2%의 비중을 차지함

□ 기타 이슈

- 홍콩 쌀 주요수입국인 태국이 가뭄으로 인해 쌀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태국쌀 수입가격이 10% 이상 증가('10.6.10, The Standard)
- 홍콩은 '10. 7. 1일자로 시행되는 신규 라벨링 규정에 따라 칼로리를 비롯한 7대 영양소가 라벨링 영양성분에 표기되어야 하며, 이를 준비하지 못한 약 2,000개의 식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10.6.26, SCMP)

2. 시장동향

□ 생산동향2)

- 홍콩은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농경지가 협소하며, 다만 홍콩 신계(New Territory) 서북부 지역에서 일부 채소류 생산과 가금류 사육이 이루어짐
- '09년말 기준 2,600개의 농장(farm)과 약 4,700명의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년 대비 농장수는 100개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200명 감소
- 2009년말 기준 채소, 화훼, 과수, 작물로 사용되는 농경지가 각각 314ha, 156ha, 266ha, 22ha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농경지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홍콩 정부에 의한 농수축산물 생산액은 연간단위로만 집계·공개되고 있으며, '09년말 생산액은 HK558백만불로 전년 대비 23.1% 감소하였음
- 생산액 구성 품목은 작물(crop), 가축(livestock), 가금육(poultry)으로 각각 236, 146, 176백만불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11.8%, +42.4%, -22.1%의 변동을 보임
- 일일 평균 생산량은 채소류, 가금류(닭), 가축류(돼지)가 각각 44톤, 9,600마리, 230두 정도임
- '09년 홍콩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 대비 채소류 2.4%, 가금류 53.7%, 가축류(돼지) 6.2%의 비중을 차지하며, 채소류와 가축류는 전년대비 비중이 감소했으나 가축류는 생산액 증가로 인해 7.7%P 증가

□ 도매시장 현황

- 홍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은 크게 4곳으로 웨스턴, 청사완, 청사완(가금류), 북부 도매시장이 있음
- 시장규모는 청사완 도매시장이 가장 크나, 웨스턴 도매시장은 가금류를 제외한 채소, 과일, 생선류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음
- 청사완(가금류)과 북부도매시장은 각각 가금류와 채소류 전문 도매시장으로 매년 취급물량은 줄어들고 있음

- 공영 도매시장 외에 야우마테이 과일 도매시장(Yau Ma Tei Fruit Wholesale Market)이 있음
- 야우마테이 시장은 1960년대에는 규모가 매우 컸으나 청사완 도매시장 설립(1965) 이후 채소와 생선류가 빠져나가면서 과일 전문도매시장이 되었음
- 과일 점포수 : 230~240개

□ 도매가격 동향3)

- 홍콩은 도매시장에서 취급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도매가격 동향은 농수산보호부(AFCD)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동향만 공개되고 있음
- 가축류 및 가금류 '10.5.28일 및 6.28일 도매시장 일일 공급량 및 가격동향 비교 자료는 아래와 같음
- 돼지와 소는 홍콩 식품환경위생국(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 의해 제공되는 수치로 전일 도살되어 해당일에 공급되는 몰량 기준임
- 닭은 청사완 가금류 도매시장에서 취급된 몰량과 가격임

< 가축류 및 가금류 도매시장 공급량 >

(단위 : 두, 두, 마리)

구 분	돼지(live pig)		소(live cattle)		닭(chicken)	
	'10.5.28	'10.6.28	'10.5.28	'10.6.28	'10.5.28	'10.6.28
중국(Mainland)	4,396	4,653	58	54	7,000	9,000
홍콩(local)	231	186	-	-	12,700	5,750
합 계(Total)	4,627	4,839	58	54	19,700	14,750

- 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소는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반입되는 반면, 닭은 홍콩 자체 반입물량이 중국보다 많음

2) 출처 : 홍콩 농림수산보호부(AFCD) '08/'09년 농업동향 자료

3) 출처 : 홍콩농수산보호부(HK AFCD) 일일 도매동향 자료
※ 단위 참고 : Picul≒60.48kg, Catty≒600g

< 가축류 및 가금류 도매시장 가격 >

(단위 : HK\$/Picul⁴⁾, HK\$/Picul, HK\$/Catty⁵⁾)

구 분	돼지(live pig)		소(live cattle)		닭(chicken)	
	'10.5.28	'10.6.28	'10.5.28	'10.6.28	'10.5.28	'10.6.28
중국(Mainland)	1,047	881	N/A	2,305	14.5	15.9
홍콩(local)					14.3	15.4

- 닭 도매가격은 보통 중국산이 홍콩산보다 높게 거래됨

○ 주요 채소류 '10.5.28일 및 6.28일 도매가격동향 비교자료는 아래와 같음

- 청사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중량 및 고품질 채소류의 가격기준임

(단위 : HK\$/Catty)

종류	'10. 5.28	'10. 6.28
양배추(green cabbage)	2.9	2.9
감자(potato)	4.0	3.4
시금치(spinach)	4.7	5.8
토마토(tomato)	3.6	3.0
배추(chinese lettuce)	3.5	3.6
브로콜리(broccoli)	8.4	7.2

□ 소매가격 동향⁶⁾

○ 소매가격 동향은 정부가 홍콩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참고하여 식품류 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10. 5월 식품류 전체 소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5%가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0.1% 다소 감소함

- 세부 품목으로는 채소 및 과일류 등 신선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증가함

< '10. 5월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구 분		'10. 4월 대비 증감률(%)	'09. 5월대비 증감률(%)
전체(All Item)		-0.1	2.5
식품류 전체(FOOD)		0.1	2.0
1	외식류(Meals bought away from home)	0.2	1.5
2	쌀(Rice)	-4.9	-4.6
3	기타 곡류 및 곡류 가공식품(Other cereals and cereal preparations)	-1.0	3.1
4	빵, 케익, 비스킷류(Bread, cakes, biscuits and puddings)	0.0	1.9
5	돼지고기(Pork)	-0.2	-4.5
6	소고기(Beef)	1.2	0.4
7	가금류(Poultry)	0.7	-2.5
8	냉동 육류(Meat, frozen)	0.9	2.3
9	캔 육류(Meat, canned)	-2.3	-4.9
10	기타 육류(Meat, others)	0.0	-2.7
11	신선 채소류(Fresh vegetables)	-0.2	17.5
12	가공 채소류(Processed vegetables)	1.0	6.4
13	신선 과일류(Fresh fruit)	1.7	9.2
14	가공 과일류(Processed fruit)	0.4	7.3
15	레토르트 식품(Dairy products)	0.0	2.0
16	계란(Eggs)	2.5	3.5
17	식용류(Edible oils)	0.1	-5.3
18	탄산음료(Carbonated drinks)	-0.9	0.4
19	기타 음료류(Other non-alcoholic beverages)	1.1	1.6
20	설탕(Sugar)	-0.7	10.2
21	사탕 과자류(Confectionery)	-2.1	5.8
22	양념류(Flavourings and additives)	0.1	-0.8
23	식품 기타(Food, others)	0.3	2.4

4) picul : 중국의 단위로 약 60.48kg, 한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에서 기원

5) catty: 중국의 무게단위로 0.6kg

6) 출처 : 홍콩통계청(HK CSD) CPI(Consumer Price Index) 3월 보고서 자료

4. 농산물 수출입동향)

□ 홍콩 농수축산물 수입개요

- '10년 5월까지 홍콩 농수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US\$6,40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5%가 증가했으며, 기타 육류 및 내장이 전체의 2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이어 과일류, 수산물, 가공식품 등이 있음
- 품목별로 수입액이 고루 증가했으며, 소고기와 곡류가 가장 크게 증가

(단위 : US천불, %)

순위	SITC 코드	품 목	2008년	2009년	'10. 1-5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증감율
-	-	전 체	12,424,830	13,587,872	6,400,966	20.5
1	012	신선/냉장/냉동의 기타 육류 및 내장 (OTHER MEAT &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3,141,838	3,256,229	1,583,443	25.3
2	057	신선/건조의 과일 및 견과류 (FRUIT AND NUTS (NOT INCLUDING OIL NUTS), FRESH OR DRIED)	1,537,196	1,976,580	959,974	20.8
3	036	냉장/냉동/건조/염장의 수산물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CRUSTACEANS, MOLLUSCS & AQUATIC NERVEBRATES,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1,150,115	1,306,871	647,565	27.1
4	098	기타 가공식품류 (EDIBLE PRODUCTS AND PREPARATIONS, NES)	881,322	967,094	459,037	20.5
5	034	신선/냉장/냉동의 어류 (FISH, FRESH (LIVE OR DEAD), CHILLED OR FROZEN)	560,630	582,208	263,960	10.6
6	111	비알콜 기타 음료 (NON-ALCOHOLIC BEVERAGES, NES)	427,456	555,805	250,669	5.7
7	011	신선/냉장/냉동의 소고기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CHILLED OR FROZEN)	357,088	472,031	239,135	38.5
9	022	우유, 크림 유제품 (MILK AND CREAM AND MILK PRODUCTS OTHER THAN BUTTER OR CHEESE)	395,204	496,190	233,575	29.9
8	017	가공육류 및 내장 (MEAT AND EDIBLE MEAT OFFAL, PREPARED OR PRESERVED, NES)	462,739	520,375	227,095	16.5
11	035	건조/염장/후제의 어류 및 펠렛 (FISH,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FISH, FLOURS, MEALS & PELLETS OF FISH)	453,660	399,055	188,525	20.8
10	048	녹말 등의 곡류 (CEREAL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OF FLOUR OR STARCH OF FRUITS OR VEGETABLES)	332,840	337,718	174,187	38.3
12	139	돼지고기 (SWINE, OTHER THAN PURE BRED BREEDING, LIVE)	279,732	331,199	138,392	5.1
13	042	쌀 (RICE)	256,855	277,432	123,630	7.4
14	037	가공 어류,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FISH,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PREPARED OR PRESERVED, NES)	244,768	240,742	100,135	18.1
15	056	가공 뿌리/덩이채소류 (VEGETABLES, ROOTS AND TUBERS, PREPARED OR PRESERVED, NES)	152,757	176,386	73,181	4.2

4) 출처 : 홍콩무역국(HKTD) 수출입통계 자료

-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미국, 브라질, 일본, 태국 등이 있으며, '10. 5월 까지 수입액은 중국이 전년 동기대비 9.4%가 증가하면서 1,277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특히 미국산 과일류 수입이 크게 증가, 59.6% 증가한 1,045백만 달러

- '10. 5월 3대 수입국의 주요 수입품목

- 중국 : 비알콜 음료류(17.2%), 기타 육류 및 내장(14.6%), 돼지고기류(10.8%) 등
- 미국 : 과일 및 견과류(36.6%), 기타 육류 및 내장(35.7%), 갑각류 및 연체류 등 수산물(4.7%) 등
- 브라질 : 기타 육류 및 내장(79.5%), 소고기(15.9%), 건조/염장의 어류(2.5%) 등

- '10. 5월까지 한국산 수입액은 7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

(단위 : US천불, %)

순위	국가	2008년	2009년	'10. 1-3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증감율
-	전 체	12,424,830	13,587,872	6,400,966	20.5
1	중국(CHINA)	2,654,461	2,922,785	1,276,777	9.4
2	미국(USA)	1,647,574	1,934,022	1,045,335	59.6
3	브라질(BRAZIL)	1,460,513	1,605,421	641,650	-1.3
4	일본(JAPAN)	616,021	717,345	376,628	42.7
5	태국(THAILAND)	740,624	844,795	357,687	8.7
6	호주(AUSTRALIA)	614,741	668,821	306,137	-0.9
7	인도네시아(INDONESIA)	409,422	472,516	249,187	35.8
8	캐나다(CANADA)	395,903	359,723	196,941	30.9
9	칠레(CHILE)	178,584	226,947	156,289	-0.3
10	네덜란드(NETHERLANDS)	289,034	310,536	150,174	31.1
11	뉴질랜드(NEW ZEALAND)	255,439	261,272	137,710	26.7
12	독일(GERMANY)	292,264	279,845	120,982	8.1
13	말레이시아(MALAYSIA)	176,638	195,225	90,940	13
14	대만(TAIWAN)	161,233	175,525	81,937	26.8
15	스페인(SPAIN)	184,473	161,552	76,126	10.8
16	한국(KOREA REP)	124,741	152,426	73,497	32.1

① 홍콩 과일 및 견과류 수입개요

- '10년 5월까지 홍콩 과일 및 견과류 수입액은 전체 US1,01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1.1%가 증가했으며, 견과류 중에는 파스타치오, 과일 중에는 포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견과류 중에는 파스타치오 및 기타 너트류, 과일 중에는 아보카도, 망고 등이 가장 많이 증가함

(단위 : US백만불, %)

순위	SITC 코드	품목	2008년	2009년	'10. 1-5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	전체(TOTAL)	1,664,187	2,087,191	1,011,522	21.1
1	05751	신선 포도 (GRAPES, FRESH)	180,525	251,007	145,463	-6.2
2	05778	신선/건조의 파스타치오 (PISTACHIOS, FRESH OR DRIED)	234,440	272,917	133,677	55.2
3	05798	기타 신선과실류(리치, 롱안, 두리안 등) (FRESH FRUIT, NES (INCL LYCHEES, LONGANS, DURIANS, ETC))	231,993	293,454	116,794	-2.3
4	05793	신선류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APRICOTS, CHERRIES, PEACHES, PLUMS AND SLOES, FRESH)	107,282	133,548	88,323	32.4
5	05774	신선/건조류 아몬드 (ALMONDS, FRESH OR DRIED)	141,054	232,779	79,237	35.5
6	05779	신선/건조의 기타 너트류(믹스너츠 제외) (EDIBLE NUTS (EXCLUDING MIXTURES), FRESH OR DRIED, NES)	91,185	128,572	73,413	78.8
7	05711	신선/건조 오렌지 (ORANGES, FRESH OR DRIED)	147,322	140,961	70,052	21.9
8	05797	신선 아보카도/구아바/망고/망고스틴 (AVOCADOS/GUAVAS/MANGOES/MANGOSTEENS, FRESH/DRIED)	71,410	114,746	62,703	47.5
9	05740	신선 사과 (APPLES, FRESH)	86,788	96,071	55,014	14.7
10	05776	신선/건조의 월넛 (WALNUTS, FRESH OR DRIED)	11,516	60,365	31,657	14.7

- 주요 수입국은 미국, 태국, 칠레 등이며 전년 동기대비 이란은 파스타치오 등 견과류와 무화과 등 과실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44.6%가 증가

(단위 : US백만불, %)

순위	국가	2008년	2009년	'10. 1-5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전 체	1,664,187	2,087,191	1,011,522	21.1
1	미국(USA)	619,789	844,334	393,036	42.2
2	태국(THAILAND)	254,303	342,222	147,325	13.7
3	칠레(CHILE)	118,820	171,429	135,897	0.1
4	이란(IRAN)	158,511	141,979	67,018	44.6
5	호주(AUSTRALIA)	75,994	114,942	45,977	-26.1
15	한국(KOREA REP)	5,880	9,778	5,979	24.4

② 홍콩 채소류 수입개요

- '10년 5월까지 홍콩 채소류 수입액은 전체 US181백만 불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했으며, 기타 채소류를 제외하면 양배추류, 버섯류, 감자류, 상추류, 옥수수등 수입
- 특히 건조, 껍질을 벗긴 콩류는 전년 동기대비 41.9%로 가장 많이 증가함

(단위 : US백만불, %)

순위	SITC 코드	품목	2008년	2009년	'10. 1-5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	전체(TOTAL)	401,643	431,291	180,722	7.6
1	05453	신선/냉장의 양배추 및 유사 채소류 (CABBAGE AND SIMILAR EDIBLE BRASSICAS, FRESH OR CHILLED)	86,427	87,267	34,424	-0.7
2	05459	신선/냉장 기타 채소류 (FRESH OR CHILLED VEGETABLES, NES)	63,501	60,247	24,951	3.9
3	05613	건조 버섯류 (MUSHROOMS & TRUFFLES, DRIED, NOT FURTHER PREPARED)	33,488	36,638	16,297	12.8
4	05661	냉동가공 감자류 (POTATOES PRESERVED NOT BY VINEGAR, FROZEN)	26,527	41,950	12,352	-33.2
5	05676	비냉동 가공 감자류 (POTATOES PRESERVED NOT BY VINEGAR, NOT FROZEN)	21,678	26,906	11,631	9.3
6	05469	냉동 기타 채소류 (OTHER VEGETABLES & MIXTURES OF VEGETABLES, FROZEN)	25,994	24,330	10,118	25.7
7	05679	가공 기타 채소류 (OTHER VEGETABLES PRESERVED NOT BY VINEGAR, NOT FROZEN)	18,507	21,794	9,071	17
8	05458	신선/냉장 버섯류 (MUSHROOMS AND TRUFFLES, FRESH OR CHILLED)	10,227	14,803	6,877	32
9	05454	신선/냉장 상추류 (LETTUCE AND CHICORY, FRESH OR CHILLED)	13,500	13,753	6,608	26.4
10	05423	건조/탈피 콩류 (BEANS (EXCL. BROAD BEANS/HORSE BEANS), DRIED, SHELLED)	7,526	8,203	4,752	41.9

○ 채소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한국은 전년대비 37.4%가 증가

(단위 : US백만불, %)

순위	국 가	2008년	2009년	'10. 1-5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전 체	401,643	431,291	180,722	7.6
1	중국(CHINA)	223,466	225,386	95,879	8
2	미국(USA)	79,992	99,424	36,683	-8.8
3	일본(JAPAN)	18,345	17,696	8,436	17.2
4	태국(THAILAND)	17,490	13,319	7,355	30.2
5	한국(KOREA REP)	3,061	10,738	5,103	37.4

□ 홍콩 한국 농수축산물 수입개요

○ '10년 5월까지 한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US73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32.1%가 증가했으며, 자당류가 전체의 5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이어 인삼류, 연체류 등 수산물, 가공식품, 과일류 등이 있음

(단위 : US천불, %)

순위	SITC 코드	품목	2008년	2009년	'10. 1-5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	전 체	124,741	152,426	73,497	32.1
1	06129	자당류 (OTHER BEET/CANE SUGAR/CHEMICALLY PURE SUCROSE, SOLID)	41,176	48,599	25,710	56.1
2	29242	인삼류 (GINSENG ROOTS)	27,072	30,376	9,201	-29.7
3	036	냉장/냉동/건조/염장의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CRUSTACEANS, MOLLUSCS & AQUATIC INVERTEBRATES,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5,783	7,682	6,184	231.1
4	098	기타 가공식품 (EDIBLE PRODUCTS AND PREPARATIONS, NES)	11,195	12,734	5,849	33.6
5	057	신선/건조의 과일 및 견과류 (FRUIT AND NUTS (NOT INCLUDING OIL NUTS), FRESH OR DRIED)	4,503	7,917	5,188	26.6
6	062	사탕류 (SUGAR CONFECTIONERY)	11,189	10,670	4,080	-7.5
7	05458	신선/냉장 버섯류 (MUSHROOMS AND TRUFFLES, FRESH OR CHILLED)	313	6,874	3,744	68.9
8	048	녹말 등의 가공 곡류 (CEREAL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OF FLOUR OR STARCH OF FRUITS OR VEGETABLES)	4,860	5,000	2,781	68.3
9	111	비알콜 음료류 (NON-ALCOHOLIC BEVERAGES, NES)	2,705	3,270	2,237	220.9
10	035	건조/염장/훈제의 어류 및 펠렛 (FISH,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FISH; FLOURS, MEALS & PELLETS OF FISH)	4,215	3,174	1,668	125.9

※ 주요품목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자 당 : ('09.5월) 16,470천불 → ('10.5월) 25,710천불 (56.1% 증가)

- 국제 자당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물량 대비 수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원자재가격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증가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인삼류 : ('09.5월) 12,970천불 → ('10.5월) 9,201천불 (29.7% 감소)

- 인삼공사 하반기 홍콩법인 폐쇄 및 중국이전에 따른 재고물량 처리 등으로 인삼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무척추류 등 수산물 : ('09.5월) 1,867천불 → ('10.5월) 6,184천불 (231.1% 증가)

- 수산물은 홍콩 상반기 건조굴 수요증가에 따른 굴 수입증가 및 해삼류 수입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치 바이어의 전복 및 해삼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 품목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가공식품 : ('09.5월) 4,377천불 → ('10.5월) 5,849천불 (33.6% 증가)

- 가공식품류는 한국 드라마 등을 바탕으로 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면류, 과자류 등 품목이 고루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홍콩 농수축산물 재수출개요

○ 홍콩은 자체 생산량이 적고, 교역이 자유로워 수입물량의 90% 이상을 재수출하는 산업구조 특성을 지님

○ '10. 5월 식품류 재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0.9%가 증가한 US1,765백만불로 전체 수입액의 약 27.5%에 해당함

- 재수출 품목은 주요 수입품목과 유사한 육류 및 과일류가 해당됨

(단위 : US\$백만불, %)

순위	SITC 코드	품 목	2008년	2009년	'10. 5월	
			금액	금액	금액	증감율
-	-	전체(TOTAL)	3,428,231	3,803,881	1,765,298	20.9
1	012	신선/냉장/냉동의 기타 육류 및 내장 (OTHER MEAT &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1,551,952	1,598,096	749,628	23.4
2	057	신선/건조의 과일 및 견과류 (FRUIT AND NUTS (NOT INCLUDING OIL NUTS), FRESH OR DRIED)	598,335	959,749	476,612	20.8
3	036	냉장/냉동/건조/염장의 수산물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CRUSTACEANS, MOLLUSCS & AQUATIC NERVELESS,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143,571	146,706	60,437	19.2
4	098	기타 가공식품류 (EDIBLE PRODUCTS AND PREPARATIONS, NES)	109,595	120,263	57,089	27.1
5	017	가공 육류 및 내장 (MEAT AND EDIBLE MEAT OFFAL, PREPARED OR PRESERVED, NES)	140,367	110,507	46,079	51.6

- 주요 재수출국으로는 미국, 브라질, 태국 등이 있으며, 특히 미국은 4-5월 육류 및 너트류 재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74.4%가 증가함

(단위 : US\$백만불, %)

순위	재수출국	2008년	2009년	2010. 5월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	합 계	3,428,231	3,803,881	1,765,298	20.9
1	미국	607,024	748,709	436,469	74.4
2	브라질	633,263	734,326	293,585	8.6
3	태국	289,205	361,620	154,387	11.8
4	중국	371,826	346,858	142,730	6.1
5	칠레	78,008	149,867	129,832	12.2

4. 경제동향⁸⁾

□ 경기 동향

- '10. 4월까지 홍콩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6.7%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액 또한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함
 - 수출급증 원인은 전년도에 기준치가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낮았기 때문임
- '10. 5월 실업률은 4.6%로 금년 최저치를 보여주었던 3-4월 4.4%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홍콩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취업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인 '08년 1분기 3.3%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임
- '10.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대비 2.5%가 상승하였으며,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전년 대비 전기, 가스, 물 등 공공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주요 경제 정세

- 홍콩 올해 홍콩 경제성장률 5% 초과 가능성 제시('10.6.8)
 - 존 창 홍콩 재정부총리는 홍콩 경제의 제1/4분기 경제회복 속도가 기대치를 상회한데다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홍콩 경제성장률이 연초 기대치인 5%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힘
- 홍콩 세계 항만 물동량 3위 차지('10.6.16)
 - 포브스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순위에서 홍콩이 3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국의 선전과 광저우가 각각 4위, 6위를 차지함
- 중국-대만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6.29)로 홍콩사회 긴장('10.6.30)
 - 중국과 대만이 무역 및 서비스개방 등을 골자로 한 ECFA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왔던 홍콩에서는 그 역할이 대만으로 이동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

8) 출처 : 주홍콩영사관 홍콩 경제/정치동향 자료

해외시장동향	미국	뉴욕 aT
--------	----	-------

1. 현장 시장 포커스

□ 미국 신 음료시장 - 문화를 마신다

최근 미국에서 출시되는 신제품을 보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공식품 카테고리는 단연 음료임. 음료와 국가를 연관지어보면 중국-차, 프랑스-와인, 이태리-커피, 멕시코-테킬라 처럼 연합할 수 있으나 틈새시장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RTD(Ready to drink:바로마시는)차, 기능성음료, RTD커피, 향미가 첨가된 우유, 두유, 마시는 요거트, RTD 프리믹스 등은 10년 전 만해도 들어보기 힘든 종류의 음료였음

최근 유로모니터(Euro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음료시장의 빠른 변화가 슈퍼마켓체인의 확장을 통한 쇼케이스의 증가, 중류층의 기대치 증가 등으로 분석한 바 있음. 특히, 유로모니터는 앞으로 톱10개국의 생수(bottle water)시장이 크게 성장 것으로 내다봤으며 여기에는 한국시장도 포함되어 있음. 10대국가는 중국,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브라질, 터키, 한국, 아르헨티나, 헝가리임

미국의 경우, 한국산 생수 수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10%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HS코드 220110 / 미네랄 생수(Mineral Water) 수입동향 >

(단위: 천달러)

	생산국가	2006	2007	2008	2009	2009 1-4	2010 1-4
1	이탈리아	66,321	81,094	80,713	84,098	32,090	28,468
2	프랑스	81,412	103,361	92,285	76,547	18,148	24,315
3	태평양섬	40,615	56,742	63,363	40,186	10,858	16,145
4	노르웨이	23,199	29,924	31,411	14,808	3,588	4,379
5	멕시코	14,885	14,387	14,041	12,982	3,076	3,412
6	캐나다	28,546	22,348	18,639	10,986	3,798	3,526
7	독일	7,687	8,252	8,150	7,318	804	779
8	뉴질랜드	1,914	4,383	2,707	3,651	919	281
14	한국	169	440	447	776	154	176

*관세:US\$0.26/Liter

(자료: USDA, BICO)

비알코올음료(HS 코드 2202.90)의 경우, 한국은 멕시코와 태국 다음으로 수입물량이 많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올해 4월까지 수입금액도 전년 동기예 비해 22%상승함

(단위: 천달러)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09 1-4	2010 1-4
1	멕시코	237,501	291,232	275,356	253,995	71,231	83,132
2	태국	79,264	105,696	90,345	83,044	23,652	25,071
3	한국	42,466	41,489	39,192	37,532	10,067	12,279
4	캐나다	12,214	14,452	12,309	10,142	3,187	4,409
5	독일	9,777	9,877	9,056	8,540	1,824	3,071
6	대만	7,017	6,852	7,462	6,986	1,878	3,134
7	브라질	1,007	1,613	4,710	6,067	1,779	1,276
8	일본	5,317	5,022	5,977	5,754	1,532	2,046
9	홍콩	3,372	5,585	5,972	5,704	1,859	1,791

*관세:US\$0.26/Liter

(자료: USDA, BICO)

HS 코드 220290로 분류되어 가장 많이 수입되는 한국산 음료는 과일이나 들어있지 않은 비알코올음료와 비알코올음료로 우유가 들어간 (초콜릿 제외)음료로 나타남. 최근에는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산 알로에음료와 비슷한 신제품들이(사진 참조)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함.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쉬운 문구, 색상, 디자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올해 봄에 열린 팬시푸드쇼에서 Best Cold Beverage로 상을 받음

(업체웹사이트www.alodrink.com)

이 외에도 칼로리가 낮은 물이지만 향미를 가미한 음료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Hint Essence Water(www.drinkhint.com), 유기농콤부차(www.honesttea.com), 박티제품으로 과일맛이 들어간 Revolution 3D 등이 있음. (www.drink3D.com) 신제품의 대부분은 여름소비자들을 겨냥한 칼로리가 낮은 음료를 내놓았으며 특히 녹차에 과일, 꿀을 가미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산 제품으로 주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로는 알로에 음료 에도 동원F&B사의 T2U가 녹차음료에 향미를 한 3가지 제품을 내놓았으며 유기농녹차를 선보여 홈푸드마켓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임

(자료:Prepared Foods, Gourmet News)

2. 시장 동향

□ 미국 요구르트시장 불경기에도 5년간 32%성장

- 미국 요구르트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현재 미국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구르트는 그리스스타일, 두유, 코코넛밀크 요거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음. 유기농전문매장으로 잘 알려진 홀푸드(Whole Foods Market)역시 요거트 전문섹션을 따로 만들어 국내산은 물론 수입산 요거트에 이르기까지 종류별로 진열을 하고 있음
- 2009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르트음료시장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2004년에서 2009년까지 32%의 성장률과 41억 달러의 매출을 보였다고 민텔이 보고한 바 있음. 최근 미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구르트는 아이슬랜드식 소프트치즈(soft cheese)같은 농도가 짙은 요거트로 브랜드는 Skyr.is로 아이슬랜드에서 직접 수입한 제품과 아이슬랜드 이민자인 시기 힐마슨(Siggi Hilmarsson)씨가 미국내에서 생산하는 시기스(Siggi's)가 있음
- 현재 Skyr.is는 홀푸드 전매장에서 독점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동부지역, 덴버, 시애틀 지역 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시기스(Siggi's)의 경우 6년 전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낸 뒤 할머니의 레시피로 요거트를 개발해 벤처기업을 차려 지금에 이름. 시기스는 홀푸드마켓과 웨그먼스(Wegmans)에서 판매되고 있음. 시기스(Siggi's) 요거트는 전제품이 무지방으로 6온즈 용기가 \$2.50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이 다른 유기농 요거트보다 비싸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항생제나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 뉴욕주 농장에서 생산원유를 사용한 고급 요거트임
(자료: 워싱턴포스트 5.27)

□ 한국 감귤 이르면 연말수입재개

- 감귤궤양병이 발견되면서 2002년 전면 중단되었던 한국산 감귤 수입이 이르면 연말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미농무성 동식물검역원은 한국산 감귤(Citrus Canker and Sweet Orange Scab)의 수입허용조건을 8일자 연방관보에 입안 예고했음
- 입안예고 내용에는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에 ▶과실 표면 살균 ▶식물검역당국 등록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음. 이번 입안예고는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고시한 뒤 시행될 예정임(자료:The Packer/USDA 6.9)

□ 미농무성 OCIA 중국 유기농인증업체 자격정지

- 미농무성이 중국정부 연관 유기농인증업체인 OCIA 중국지사의 유기농인증자격을 1년간 정지시킴. OCIA International사는 네브라스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로 전세계의 유기농 업체들을 인증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 8월 인증갱신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다 인증을 담당하던 검역관이 중국정부의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고 샘존스엘라드 미농무성 국립유기농프로그램 대변인은 밝힘
- OCIA사는 중국내에서 유기농인증으로는 인지도가 높은 업체로 지금까지 231개업체의 인증을 했으며 11개국에서 1800여개의 유기농업체를 인증, 미국농장주들이 1980년 설립한 비영리단체임. 미농무성은 1년간 OCIA 중국지사의 자격정지발표와 함께 다시 인증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 혹은 비슷한 정부기관과 연관이 전혀 없는 검역관을 임용해야만 한다고 강조
- 뉴욕타임즈는 6월 13일 최근 홀푸드(wholefoods)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유기농식품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항의와 비슷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에롤 스위저(Errol Schweizer) 글로벌식품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특히 2년 전 만해도 취급하고 있던 중국산 유기농PB브랜드 제품이 30개에 달했으나 현재는 냉동 에다마메(겉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2개 아이템만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힘. 홀푸드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산 유기농 공급업체들의 제품을 상대로 자체적인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했으나 조사결과는 에다마메만이 가장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적절한 아이템이었다고 전함. 미국은 연간 중국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나 유기농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은 알 수 없음. 그러나 지난해 미농무성을 통해 유기농인증을 받은 중국 업체는 669개 업체로 2008년 216개에서 20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USDA/뉴욕타임즈/The Packer 6.13)

□ 중국 상품의 미국 수난

- 미국 식약청 (FDA)는 시카고 소재 Alfred L. Wolff사의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벌꿀제품 64개 드럼을 압수하였음. FDA 대변인에 따르면, 압수된 제품은 중국의 Cheng Du Wai Yuan Bee Products 제품으로, 앞서 검역과정에서 금지된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이 검출되어 반송조치를 하였으나, 캘리포니아의 수입자를 통해 재수입 되었다고 함. 동 제품이 허위 반송 및 위장 재수입이 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과정, 동 제품이 소비자에게 일부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함구를 함 (출처 :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 USDA 토마토병충해(Tuta Absoluta)로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토마토수입제한조치

- 미농무성이 토마토병충해인 투타 애플루타(Tuta Absoluta)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캐나다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든 토마토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 같은 제한은 6월 14일부터 발효되며 지난 6월 7일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캐나다식품검역소(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는 캐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에서 발주되거나 재수출되는 토마토에 대해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전함. 위 국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캐나다를 통해 미국반입이 금지되며 이번 조치는 지난10월 파프리카에 내린 조치와 유사함. 관보에 따르면 토마토병충해가 있는 국가가 원산지인 토마토는 캐나다든 물론 미국에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음 (자료:미농무성/The Packer 6.8)

□ 미국 베리류(Berry)류 소비 동향

- 미국에서 생산되는 베리류는 신선농산물 매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품목임. 딸기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커런트 등 종류가 다양해 매출향상에도 효자이지만 최근 포장이나 생산기술이 향상되면서 미국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이 연중 공급되는 장점을 갖고 있음
- 베리류는 신선농산물 가운데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1월 30일까지 1년간 전국적으로 베리류는 매장당 1주 평균 매출이 \$2,950로 전년 동기 대비 6.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베리류 매출이 가장 낮은 시기는 10월이지만 가장 피크시점은 7월로 1주 매출은 매장당 \$4,798까지 큰 상승폭을 보임. 블루베리의 경우, 단일제품으로는 7월 하순에 매장당 주 매출이 \$1,591까지 늘어난 반면 커런트나 기타 베리류는 추수감사절에 매장당 주 매출이 \$665까지 상승
- 딸기판매는 연중 다양하지만 평균 \$2,219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이 높은 시기와 가장 낮은 시기의 매출차이는 302%로 나타남. 그러나 2004~2008년 매출을 비교하면 딸기의 경우 2004년 베리류 시장점유율은 63.8%에서 2008년 57.2%, 2009년 55.9%로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냄. 이에 반해 블랙베리와 라즈베리는 지난 5년간 1.5%씩 각각 성장했으며 블루베리는 3.8%의 상승률을 보이며 베리류 시장점유율은 24.7%를 기록해 큰 성장세를 보임
- 지난 2년간 딸기와 라즈베리는 시즌에 맞추어 일정크기의 포장용기에 담겨 판매가 되었는데 딸기의 대부분은 16온즈 크기의 포장팩에 판매되다가 4월에서 7월에는 32온즈 포장에 판매된 반면 라즈베리는 5월에서 9월까지만 12온즈에 판매되고

나머지기간은 6온즈에 판매됨. 블루베리 상지는 4.4온즈(9월에서 12월)에서 8온즈(3월에서 6월)로 시즌에 따라 포장사이즈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Produce Retailer 5월호)

3. 과채류 도매가격 (헌즈포인트 터미널마켓기준 2010.6.16)

(단위: US\$)

품목	사이즈	최고가격	최저가격	원산지
사과 레드딜리셔스	80개/40LB	30	15	워싱턴/뉴욕
사과 골든딜리셔스	80개/40LB	28	13	워싱턴/뉴욕
사과 그라니스미스	80개/40LB	44	26	워싱턴/뉴욕
사과-후지	80개/40LB	40	32	워싱턴/필라델피아
신고배	12개/10LB	10	10	칠레
발렌시아 오렌지	88개/38LB	20	18	캘리포니아
키위	27개/1layer	7.5	3	뉴질랜드
딸기	12 1-Pt	12	7	캘리포니아
레몬	140개/38LB	40	32	캘리포니아
자몽 레드	56개/34LB	16	10	플로리다
배추	30LB	20	12	캘리포니아
마늘	30LB	68	36	캘리포니아/중국
토마토	5x6/25LB	9	5	플로리다
표고버섯	3LB	16	8.5	필라델피아
파	48Bu/13LB	12	10	캘리포니아
일본고구마	40LB	50	36	캘리포니아
파프리카	1 1/9Bushel	20	18	캘리포니아
양파	50LB	27	24	뉴욕
감자	80개/50LB	14	12	아이다호

(자료:USDA)

4. 미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 2010년 4월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US천불, %)

구 분	2009년 4월	2010년 4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수 출 액	32,907,244	39,226,151	19.2
○ 수 입 액	27,973,091	30,691,144	9.72
□ 무역수지	4,934,153	8,535,007	72.9

자료: FAS. USDA

□ 2010년 4월 미국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US천불, %)

구 분	2009년 4월	2010년 4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농림수산제품	31,881,281	34,652,213	9
○ 소비재	15,929,907	17,415,100	9
○ 중간소비재	5,133,570	5,349,110	4
○ 1차농산물	3,877,368	4,414,049	14
○ 수산물	3,908,190	3,961,069	1
○ 임산물	3,032,246	3,512,885	16

자료: FAS. USDA

□ 주요 국가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1	2	3	4	5
국가	미국 전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칠레	브라질
총수입액	30,691,144	7,044,782	5,019,791	1,758,805	1,470,240	1,055,808
전년 동기대비(%)	9.7	9	13	6	-3	9

자료: BICO USDA

□ 2010년 4월 미국 수입 동향 분석

- '10년 4월의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은 30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9.7% 상승
 - 쌀은 4%, 차류 20% 상승
 - 신선과일은 12%, 신선채소는 31%상승, 주스류는 6%하락
 - 가공 과일 및 야채는, 스낵류는 18%로 지속적인 상승세
 - 식물성 기름(열대성 유지제외) 11%상승, 종자류 12%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1차 코코아, 사탕수수 및 사탕무, 쌀, 직접 소비재는 신선과일, 인스턴트커피, 주류, 스낵류로 경기안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물량이 늘어남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제품군은 1차 농산물로 감소율은 사료 -30%, 밀 -37%, 담배 -41%. 중간소비재의 감소율은 열대유지 -12%, 종자류 -12%, 직접 소비재는 주스류 -6%, 유제품 -21%, 신선육류 -1%

□ 2010년 4월 미국 수출동향 분석

- 2010년 4월의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출액은 3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
 - 1차 농산물인 대두를 포함해 벌크농산물, 사료용 곡물, 면, 중간소비재인 동물성유지, 당류, 밀가루 그리고 최종소비재인 유제품, 청과, 견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함
 - 1차 농산물은 17% 상승, 중간소비재는 38% 상승, 최종소비재는 11% 증가함

□ 한국산 수입동향(수입금액)

(단위: US천불, %)

2009년 4월		2010년 4월	
금액	전년 동기대비	금액	전년 동기대비
73,521	-12.02	91,808	24.9

자료: FAS. USDA

□ 2010년 3월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

○ 한국산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9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73백만 달러 대비 24.9% 상승함

- 벌크농산물은 전년도 120만 달러에서 184만 달러로 51% 증가
- 중간제농산물은 전년도 731만 달러에서 948만 달러로 30%증가
- 소비재 농산물은 전년도 636십만 달러에서 795만 달러로 25%증가
- 임산물(펄프, 종이 제외)은 전년도 137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27% 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차류, 쌀, 가공과채류, 주류, 유제품, 스낵류, 종자류

- 가공과채류 : 냉건조나물류, 반찬류, 과일조제품등이 수입되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스낵류 : 쌀로 만든 스낵 외에도 유기농곡물로 만든 건강스낵, 여름휴가철을 이용한 간식용으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음
- 전통주류 : 막걸리의 포장과 맛이 다양화 되면서 한인소비자들과 현지인들의 관심고조 그리고 한식과 어울리는 한국산 주류의 홍보로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임

○ 주요 감소품목은 견과류, 과일류, 식물성유지등이 급격히 감소함

- 배 : 4대 배 수출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한국의 배 전체 배 수출은 -24%하락했으며 한국역시 -19%하락함.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바나나, 사과와 같은 저렴한 과일류로 구매라인을 전환한 것은 물론 로컬에서 재배되는 유기농과실들의 PB브랜드 농산물이 늘어나면서 수입농산물의존도 하락
- 무 : 미국 통계자료에는 없으나 현지 한파로 인해 무수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한국산 제주무의 수입이 늘어남. 계절변화로 인해 현지산 과채류값이 상승해 한국수입산 무와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으며 품질도 월등해 한인 교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 인삼뿌리 : 미국의 인삼뿌리 수입의 전체적인 물량은 늘어났으나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과 홍콩으로 대만과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함. 대만은 -1%감소, 한국은 -26%로 한국산 뿌리삼의 농약검출로 인해 한국산은 찾아보기 힘들며 중국산 역시 한국산을 위조함 모조품들이 다량 수입되고 있음

< 미국의 주요 부류별/ 주요 4대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4월		
		금액	금액	'09 금액	'10 금액	%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캐나다	24,861,350	19,420,511	6,479,452	7,044,782	9
	멕시코	11,165,424	11,576,290	4,407,782	5,019,791	13
	중국	3,606,105	5,194,489	1,622,580	1,758,805	6
	칠레	2,706,218	2,651,847	1,393,374	1,470,240	-3
	계	42,339,097	38,843,137	13,903,188	15,293,618	10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캐나다	6,852,344	4,530,467	1,406,396	1,853,614	32
	중국	2,854,944	2,320,199	696,303	778,863	12
	브라질	812,352	530,087	183,547	179,457	-2
	칠레	657,457	506,498	162,738	135,397	-17
	계	11,777,097	7,887,251	2,448,984	2,947,332	20
○ 벌크농산물전체	인도네시아	2,098,859	1,222,669	452,368	755,142	67
	캐나다	2,824,079	1,827,167	778,967	580,431	-25
	브라질	1,076,044	1,143,220	353,747	428,329	21
	태국	1,025,401	690,961	258,057	362,102	40
	계	7,024,382	4,884,017	1,843,139	2,126,004	15
- 사료용 곡물	캐나다	818,244	482,453	184,619	128,248	-31
	멕시코	10,909	8,393	4,645	2,995	-36
	핀란드	6,072	4,817	0	0	--
	페루	891	1,626	304	714	135
	계	836,116	497,289	189,576	131,957	-30
- 쌀	태국	341,227	370,728	132,427	141,145	7
	인도	125,442	113,562	29,433	34,738	18
	중국	24,570	4,679	1,569	1,338	-15
	파키스탄	30,525	21,214	6,393	6,564	3
	계	521,764	510,183	169,822	183,784	8
- 담배	브라질	304,063	308,046	102,827	72,657	-29
	터키	127,989	185,363	125,734	48,327	-62
	아르헨티나	45,808	24,655	1,990	5,051	154
	말라위	25,350	51,475	16,357	14,735	-10
	계	503,209	569,540	246,908	140,770	-43
- 차(허브차포함)	중국	88,802	76,898	23,872	28,612	20
	캐나다	78,999	95,433	33,140	37,685	14
	독일	51,514	45,479	13,330	18,493	39
	인도	51,045	52,813	14,840	18,316	23
	계	270,360	270,623	85,182	103,105	21
○ 중간제농산물 전체	캐나다	5,674,640	4,144,556	1,582,069	1,597,493	1
	아일랜드	2,037,818	1,787,762	629,182	649,920	3
	말레이시아	1,605,319	1,155,756	410,961	391,159	-5
	멕시코	1,006,804	1,095,433	382,826	346,180	-10
	계	10,324,580	8,183,507	3,005,038	2,984,752	-1
- 식물성기름 (열대성유지제외)	캐나다	1482,595	998,806	327,665	362,227	11
	이탈리아	655,959	540,734	163,427	174,148	7
	스페인	230,455	184,165	65,975	75,604	15
	아르헨티나	101,558	67,950	9,722	8,483	-13
	계	2,470,568	1,791,655	566,790	620,462	9
- 종자류	캐나다	196,455	173,280	89,373	71,962	-19
	칠레	166,333	193,957	132,932	120,491	-9
	네덜란드	61,276	75,953	24,254	22,539	-7
	아르헨티나	93,965	71,799	64,191	23,073	-64
	계	518,029	514,630	310,750	238,065	-23

자료: USDA BICO Report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4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 당류	캐나다	332,890	290,662	91,045	99,590	9
	멕시코	403,797	435,314	167,675	93,626	-44
	파테말라	80,784	66,028	27,674	33,384	21
	브라질	62,876	30,058	5,457	7,424	36
	계	880,346	822,063	291,852	234,024	-20
○소비제품축산물 전체	캐나다	9,510,287	8,737,494	2,709,020	3,013,245	11
	멕시코	9,419,596	9,775,435	3,754,771	4,453,326	19
	호주	2,163,640	2,028,394	687,658	568,630	-17
	이탈리아	2,462,803	2,213,405	628,903	698,458	11
	계	23,556,327	22,754,727	7,780,352	8,733,658	12
- 스낵류 (초콜릿포함)	캐나다	2,473,873	2,311,658	706,231	836,689	18
	멕시코	898,439	1,044,221	299,158	377,973	26
	독일	202,711	188,020	42,361	52,098	23
	중국	185,652	166,417	44,980	40,728	-9
	계	3,760,675	3,710,316	1,092,730	1,307,488	20
- 낙농제품 (치즈제외)	뉴질랜드	660,074	526,476	273,392	158,250	-42
	캐나다	106,308	86,530	25,512	33,474	31
	호주	103,183	81,742	35,010	25,901	-26
	인도	106,621	34,964	18,623	38,940	109
	계	976,186	729,712	352,537	256,565	-27
- 신선채소	멕시코	2,941,592	2,841,900	1,446,587	1,911,152	32
	캐나다	925,150	849,996	188,748	241,234	28
	페루	184,341	197,424	31,978	33,678	5
	중국	91,097	75,047	22,525	45,298	101
	계	4,142,180	3,964,368	1,689,839	2,231,363	32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멕시코	1,682,604	1,928,525	701,486	762,035	9
	칠레	1,245,144	1,251,298	881,468	1,009,807	15
	코스타리카	424,558	424,716	152,131	182,087	20
	캐나다	150,591	146,175	7,491	7,586	1
	계	3,502,897	3,750,714	1,742,574	1,961,515	13
- 과일채소가공품	캐나다	1,156,286	1,087,202	365,215	342,382	-6
	중국	812,919	745,372	249,886	242,876	-3
	멕시코	807,692	810,722	306,330	304,324	-1
	태국	381,839	379,103	121,643	120,034	-1
	계	3,158,737	3,022,399	1,043,074	1,009,616	3
- 주스류	중국	675,381	356,854	131,479	103,399	-21
	브라질	302,040	238,121	94,233	127,717	36
	멕시코	206,337	173,062	73,333	83,922	14
	아르헨티나	214,670	141,533	47,218	22,475	-52
	계	1,398,428	909,570	346,264	337,513	-3
- 견과류	베트남	277,253	258,282	64,688	62,825	-3
	인도	242,495	174,870	57,144	59,890	5
	브라질	132,474	155,928	48,824	51,886	6
	멕시코	176,613	219,735	53,290	52,341	-2
	계	828,835	808,815	223,947	226,943	1
- 주류 (와인과 맥주)	멕시코	1,568,452	1,520,954	488,725	494,482	1
	프랑스	1,418,098	971,772	270,774	279,854	3
	이탈리아	1,334,111	1,222,742	351,123	389,587	11
	네덜란드	1,056,269	960,670	318,313	310,833	-2
	계	5,376,931	4,676,138	1,428,934	1,474,756	3

자료: USDA BICO Report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4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 원예작물/ 절화	콜롬비아	515,646	516,462	220,790	240,855	9
	캐나다	270,648	247,413	84,209	103,479	23
	네덜란드	236,951	194,972	68,665	66,047	-4
	에콰도르	134,331	118,641	55,075	61,356	11
	계	1,157,576	1,077,488	428,739	471,737	10
- 커피(구운것/ 인스턴트)	캐나다	131,155	172,837	52,555	76,903	46
	멕시코	96,919	106,704	30,554	43,956	44
	브라질	104,254	89,130	28,245	23,404	-17
	이탈리아	44,090	39,748	10,432	14,063	35
	계	376,419	408,418	121,786	158,326	30
- 향신료	인도	179,470	129,515	46,790	48,492	4
	인도네시아	130,525	100,241	24,083	29,697	23
	중국	86,821	81,416	25,660	33,401	30
	캐나다	94,496	82,063	28,313	26,108	-8
	계	491,312	393,235	124,846	137,698	10
- 인삼(뿌리)	중국	9,601	4,741	1,527	3,045	99
	대만	2,787	3,221	706	699	-1
	홍콩	2,756	5,563	2,162	2,175	1
	캐나다	1,896	1,485	388	736	90
	계	17,040	15,010	4,782	6,655	39
- 배	아르헨티나	36,205	38,060	27,678	22,579	-18
	한국	21,670	23,445	5,650	4,549	-19
	칠레	22,164	18,955	11,212	8,015	-29
	중국	12,333	10,056	4,360	1,954	-55
	계	92,373	90,517	48,901	37,097	-24
- 감귤(만다린)	스페인	87,936	72,409	21,025	15,981	-24
	모로코	26,116	22,985	12,355	16,630	35
	남아공	6,005	7,054	0	0	--
	페루	8,640	11,435	21	54	162
	계	128,696	113,884	33,400	32,665	-2
- 포도(신선)	칠레	679,137	702,056	628,027	680,368	8
	멕시코	224,769	285,870	63	0	--
	브라질	38,663	22,237	0	0	--
	페루	26,268	31,593	11,997	28,726	139
	계	968,837	1,041,756	640,087	709,094	11
- 딸기(신선)	멕시코	116,806	151,773	105,183	163,183	55
	캐나다	499	755	0	5	--
	중국	99	60	21	0	--
	뉴질랜드	457	18	7	0	--
	계	117,862	152,606	105,211	163,188	55
- 밤	이탈리아	4,698	5,530	90	218	143
	중국	3,941	2,801	654	580	-11
	한국	992	3,260	485	426	-12
	프랑스	140	124	19	7	-65
	계	9,770	11,716	1,248	1,231	-1

자료: USDA BICO Report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 >

(단위: US천불, %)

품목	'08 금액	'09 금액	4월		
			'09	'10	%
			금액	금액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254,210	249,656	73,521	91,808	24.9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5,082	3,918	1,379	1,000	-27
○ 벌크농산물전체	5,917	4,504	1,214	1,835	51
- 사료용 곡물	22	60	0	17	--
- 쌀	380	790	226	407	80
- 담배	95	0	0	0	--
- 차(허브차포함)	3,713	3,353	857	1,311	53
○ 중간재농축산물 전체	20,915	21,388	7,314	9,486	30
- 식물성기름(열대성유자제외)	14,995	17,400	777	573	-26
- 종자류	1,413	928	240	1,502	527
- 당류	1,091	892	70	51	-27
○ 소비재농축산물 전체	222,296	219,846	63,614	79,486	25
- 스낵류 (초콜릿포함)	21,344	19,409	5,075	8,793	73
- 낙농제품 (치즈제외)	9,723	7,559	2,344	3,404	45
- 신선채소	7,794	7,976	3,226	3,107	-4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23,343	24,759	5,753	4,555	-21
- 과일채소 가공품	18,494	18,891	6,003	8,599	43
- 주류(와인과 맥주)	5,312	5,815	1,539	1,963	28
- 원예작물/절화	2,378	1,199	420	651	55
- 커피(구운 것/인스턴트)	3,794	5,682	1,122	878	-22
- 향신료	2,678	2,787	885	1,299	47
- 주스류	2,097	2,527	623	785	26
- 견과류	1,042	3,586	578	469	-19
- 밥	992	3,260	485	426	-12
- 배	21,670	23,445	5,650	4,549	-19
- 포도	900	1,088	0	0	--
- 딸기(신선)	36	9	9	0	--
- 인삼(뿌리)	697	733	316	233	-26

자료: USDA BICO Report

4. 경제전망

-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3.0%로 잠정 집계됐다고 연방 상무부가 5월 27일 발표함. 이는 지난 4월 말 발표된 속보치인 3.2%에 비해 하향 조정된 것으로 특히 시장예측전문기관들이 예상했던 수준인 3.4%에는 크게 미달함
- 1분기 성장률이 속보치 3.2% 대비, 전문가들의 예상수준보다 낮게 나온 것은 가계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 및 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1분기 중 3.5% 증가해 지난달 나온 속보치 기준의 증가율 3.6%에 미달함
- 한편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의 성장률 5.6%에 비해 크게 둔화되기는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3분기 연속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장기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는 0.4% 증가함. 3월에 비해 0.4%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발표. 이것은 전망치 0.2%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8%나 늘어남
-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소매 판매의 호조는 경기회복에 대한 분명한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음. 4월 소매 판매는 자동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 자동차 및 부품 판매는 감소 예상과는 달리 전월 대비 0.5% 증가, 건축자재 판매는 6.9% 휘발유 판매는 0.5% 확대됨

해외시장동향	동남아	싱가포르 aT
--------	-----	---------

1. 현지시장 포커스

□ 싱가포르

- 일본에서의 규제역 (FMD) 확산으로, 싱가포르 AVA에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싱가포르내 일본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류가 곧 판매대에서 사라지게 될 전망
- 3월에 일본내 규제역 발생 보고에 따라, AVA의 관련기관(Primary Production Department)은 일본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의 수입을 중단시켰으며, 6월 현재 신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급식당 보유 냉동채고도 곧 바닥날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AVA는 싱가포르에 유통되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류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 스웨덴, 우루과이, 미국 등 허가 받은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안심해도 된다고 발표함
(출처 : Strait Times, AVA)

□ 말레이시아

- 미국 곡물 메이저인 카길(Cargill)사의 말레이시아 법인(Cargill Palm Products Sdn Bhd)는 클랑 항(Port Klang)과의 MOU에 따라, 클랑 항(Port Klang) 경제구역(PKFZ)에 US\$ 5천만을 투자해 건설 중인 식용유 정제공장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1년 중반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힘
- 카길(Cargill)의 말레이시아 대표 토마스 폴힐(Thomas Polhill)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공장은 식용유 생산능력을 배가시켜, 2012년부터 카길의 식용유 생산능력은 연간 95만 톤으로 증가예정이라고 함
- 카길의 새공장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할랄허브(halal hub) 목표에 호응하기 위하여 경제구역(PKFZ)의 할랄(Halal) 산업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량 전량은 해외 70여개국의 할랄(halal)시장으로 수출될 계획이라고 함
(출처 : Bernama)

□ 말레이시아 과일껍질을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포장재 개발

- 말레이시아 Sain Malaysia 대학교 (USM) 연구진은, 바나나, 람부탄, 첼페다 등의 열대과일의 껍질을 이용한 내구성과 경제성을 갖춘 생물분해성 (biodegradable) 의 바이오-플라스틱 포장재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함
- 프루트플라스트(Fruitplast)로 명명된 이 제품은, 최근 ITEX 2010 (International Invention, Innovation & Technology Exhibition, Kuala Lumpur)에서 금상 수상
- 연구를 주도한 Hanafi 박사는, 현재 제공이 되는 PLA 및 PCL 등의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제품들은, 분해가 되지 않는 PE 및 PP 제품에 비해 8배의 가격차를 보여, 상업적 적용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과일의 폐기물을 이용한 상업성을 갖춘 생물분해성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함
- Hanafi 박사는, 연구진이 개발한 제품은 기존의 PE, PP 제품에 비해 10% 정도 저렴하며, 3~6개월 이내에 분해가 된다고 밝힘.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은 향후 연간 3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라고 함

(출처 : ITEX Malaysia, USM, The Star 종합)

□ 태국

- 정치소요 사태가 진정된 이후, 태국 정부는 소요사태의 배경으로 지적된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US\$ 135억 상당의 농민보조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함. 동 예산은 태국의 쌀 수출 차질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손실을 입은 약 20여만 명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발표 되었으나, 아직은 그 효과가 미지수임
- 먼저, 태국은 5-6월에 극심한 가뭄을 겪어, 8월의 쌀 수확 예상량이 당초의 5백만 톤에서 2백만 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농민들은 추가적인 손실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의 쌀 중심의 응급처치식 예산 편성에 익숙해진 농민들이, 권장되는 2모작이 아닌 4-5모작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여기에, 수출시장에서는 저가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에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임. 베트남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필리핀의 올해 쌀 수입량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세안 공동유효특혜관세(CEPT)의 발효로 아세안 내에서도 시장을 계속 확대 중에 있음

- 태국 정부는, 고품질 홈 마리(Hom mali) 쌀의 생산 확대, 쌀의 2모작 제한, 녹두, 사탕수수, 옥수수 등의 대체작물의 재배 등을 권유하고 있으나, 습관화 되어버린 태국 농민들의 저품질 쌀의 생산 및 농가 불만 표시에 따른 정부의 응급조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출처: Bangkok Post, The Nation, AP, Reuters, Intellasia 종합)

□ 인도네시아

- 환경단체들의 압력으로, 인도네시아 산 팜유의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유니레버, 크레프트, 네슬레사 등이, 발표내용과는 달리 제3자 (Cargill) 그리고 구매중단 대상이었던 시나 마스(Sinar Mas) 등으로부터 계속 팜유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다국적 기업들의 이중적 행태가 비난을 받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기업경쟁감독위원회 (KPPU)는 5월 4일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생산 20개사가 가격 담합 행위를 통한 독과점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총 2,900억 루피아 (약 US\$ 1,600만)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기업명 및 벌금액은 다음과 같음

기업명	벌금 (IDR 1,000,000)
Sinar Alam Permai	20,000
Wilmar Nabati Indonesia	1,000
Multi Nabati Sulawesi	25,000
Agrindo Indah Persada	25,000
Multimas Nabati Asahan	25,000
Musim Mas	15,000
Intibenua Perkasatama	2,000
Megasunya Mas	15,000
Agro Makmur Raya	5,000
Nikie Oleo Nabati Industri	20,000
Permata Sawit Hiaiu	5,000
Nubika Jaya	2,000
Sinar Mas Agro Resources	25,000
Salim Ivomas Pratama	25,000
Bina Karya Prima	25,000
Tunas Baru Lampung	10,000
Berlian Eka Sakti Tangguh	10,000
Pasific Palmoil Industri	10,000
Asian Agro Agung Jaya	10,000
Indo Karya Internusa	15,000

-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의 디딕 애치마디(Didik Achmadi) 위원장은, 해당기업들이 팜유회사들의 관계사인 점을 악용하여, 팜유의 세계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가격 담합 행위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내 식용유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밝힘. 해당 20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식용유 시장의 68%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KPPU의 결정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 AFP, Antara, Jakarta Post 종합)

□ 필리핀

- 필리핀 정부는, 엘니뇨현상에 따른 가뭄피해가 예상보다 적어 2010년에 추가적인 쌀 수입계획은 없다고 발표함.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가인 필리핀은 작년에 낙찰된 245만 톤의 쌀 중 225만 톤이 6월까지 도착완료 되며, 나머지 20만 톤은 9월 15일까지 도입완료 됨. 필리핀 NFA의 대변인은, 현재 쌀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며, 2011년 도입분에 대한 입찰은 4/4분기에 있을 것이라고 전함
- WHO가 독일을 조류독감 안전지역으로 발표하자, 필리핀 농림부는 독일산 가금류 및 부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지역 조류독감 미발생 3대국가 중의 하나인 필리핀은 자국의 조류독감 예방을 위하여, 조류독감 우려지역으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환경단체들의 압력으로 세계 팜유의 85%를 공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수출이 주춤하는 사이, 필리핀의 코코넛유 수출이 300% 이상의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필리핀 코코넛협회 (UCAP)에 따르면, 필리핀의 코코넛유는 2010년 14월의 기간 동안 48만 톤이 수출되어, 전년 동기의 14만 톤에 비해 340%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출처 : Reuters, Malaya, Daily Inquirer 종합)

□ 베트남

- 6월 18일 현재 쌀 330만 톤, US\$ 13.8억을 수출하며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가로 부상. 2010년 700만 톤의 쌀 수출을 목표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전문가들이 예상한 인도의 쌀 부족이 가시화 되지 않고,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등이 저가의 쌀로 공략해오자, 베트남 비나푸드2(Vinafood 2)는 남미 및 아프리카

카등지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적극적 마케팅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베트남은 수출이 완료단계에 있는 필리핀 물량을 포함해, 2010년 5월 현재 460만 톤의 계약물량을 확보하고 있음

○ 베트남 농림농촌부(MARD)는 5월에 수확기를 맞은 베트남의 사탕수수 작물이 전년 대비 5천 톤이 감소한 90만 톤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산업부와 농림농촌부(MARD)는 공급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올해 설탕 수입물량을 20만 톤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협의하고 있음. 농림농촌부(MARD)는 사탕수수가공공장들의 가동률이 61%에 머무르고 있어, 농지확보가 우선이라며 2015년까지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30만 ha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입안 중에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커피 재고유지 계획 발표에 따라, 커피의 국제시세가 산지가격은 톤당 US\$1,373~1,378로 전주 대비 7% 상승하였으며, 런던 현물시장의 6월 11일 커피시세는 전주 대비 US\$243 상승한 US\$1,579/톤을 기록하였음. 베트남은 5월 현재 58만 톤, US\$8.1억의 커피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

(출처 : Intellasia, VOV, VCCI, VNN, Financial Times 종합)

□ 아세안 - 중동국가의 ASEAN내 농지 보유 증가 공통 -

○ 식량안보를 내세운 해외 농지의 보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한때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해외 농지에 투자하여 세계 메스컴의 주목을 받았었음. FAO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중국은 필리핀, 라오스, 호주, 러시아, 카메룬, 카자흐스탄, 쿠바 등지에 2,090,796 ha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몽고, 수단, 마다가스카, 인도네시아 등지에 2,306,000 ha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 브라질, 뉴질랜드 등지에 324,262 ha를 보유하고 있음

○ 이제는 해외 농지 투자의 열기가 중동국가들로 이전해간 느낌. 인도네시아 및 수단 등지에 이미 1,610,117 ha의 해외 농지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파키스탄 및 수단 등지에 이미 1,282,500 ha의 해외 농지를 보유한 UAE를 필두로, 중동국가들의 ASEAN 국가 농지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유로는 높은 유가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여유자금의 발생, 국가발전을 위해 이윤만을 추구하는 미국 및 유럽자본 보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하는 중동 자본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halal 식품에 대한 이해 등이 꼽히고 있음

○ 최근 확인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네시아에 보유 중인 1,600,000 ha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2,000,000 ha에 대한 투자제의를 받았으며 (Reuters, 2010-06-12,

2010-06-18), 말레이시아의 동해안경제지역 (ECER)과는 농경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Bernama, 2010-05-13), 필리핀과는 50,000 ha에 대한 공동개발 MoA를 서명하였음 (Manila Bulletin, 2010-05-05) ; UAE는 인도네시아에 100,000 ha (Reuters, 2010-02-14) 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 카타르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 위하여 US\$ 10억의 투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Reuters, 2010-05-12), 베트남의 화훼단지 및 25,000 ha의 농지에 US\$ 10억을 투자하였음 (VOV, 2010-03-20)

(출처 : FAO, Reuters, Bernama, Manila Bulletin, VOV 종합)

2. 농산물 수출입 동향

□ 싱가포르

○ 5월 한국산 농산물 수입은 US\$ 640만으로 전월대비 11.3% 증가함. 배 (116,362% 증가), 토마토 (139,490% 증가), 멜론 (16,300% 증가)이 급증하고, 과실류와 채소류 전체는 26.8% 및 70.7%의 감소를 보임. 연초류 및 주류는 각각 65.2%, 65.7% 증가하여 남아공 월드컵 영향으로 보임

○ 한국의 대 싱가포르 2010/04월 및 2010/05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USD)

	2010년 4월	2010년 5월	증감(%)
농산물	5,748,093	6,397,781	11.3
전 분	51,906	103,545	99.5
과실류	164,532	120,483	-26.8
과즙음료	84,805	109,221	28.8
채소류	1,188,115	348,640	-70.7
소오스류	147,767	64,419	-56.4
커피류	515,521	359,093	-30.3
필터담배	1,331,118	2,198,767	65.2
인삼류	76,934	1,632	-97.9
주 류	185,279	307,070	65.7
음 료	109,826	91,404	-16.8
과자류	151,682	174,122	14.8
면 류	407,951	278,543	-31.7
국 수	59,686	65,182	9.2
라 면	223,965	177,222	-20.9

(출처: kati.net)

□ 그 외 아세안국가

- 아세안국가의 5월 한국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전분 (-22.7%), 과실류 (-46.4%), 채소류 (-80.8%), 소오스류 (-59.1%), 인삼류 (-51.3%) 등 대부분에서 약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총수입금액 30.9%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베트남 또한 과실류 (-98.7%), 채소류 (-98.1%), 소오스류 (-20.3%), 커피류 (-25.4%) 등의 약세로 전월대비 수입금액이 26.8%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곡류 (4,489%), 전분 (10.1%), 소오스류 (150.5%), 주류 (18,967%) 등이 분전하며 과실류 (-46.0%), 버섯 (-3.8%), 인삼류 (-98.1%) 등의 감소를 보존하여 전월대비 총금액이 15.8% 증가 하였다. 태국은 전분 (-100%), 채소류 (-73.4%), 소오스류 (-43.2%)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실류 (501%), 혼합조제식품 (283%) 등이 증가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76.9% 증가하였음. 필리핀은 보리 (2,901%), 과실류 (253.4%), 채소류 (99.8%), 주류 (75.1%) 등이 증가하였지만, 전분 (-23.9%), 소오스류 (-72.4%), 인삼류 (-100%) 등의 감소로 전월대비 수입금액이 6.8%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 5월 총금액별로는 태국이 급성장세로 US\$ 1,861만을 기록하며 아세안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베트남은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여 US\$ 1,126만으로 2위를 기록.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보험세를 이어갔으며 말레이시아는 급감함
- 태국은 정치소요 사태 이후에 시장수요가 회복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연초에 수입 또는 통관 제한되던 품목들에 대한 제한조치의 해제에 따른 수입증가로 보임. 관할국가 전반에 걸쳐, 과실류 및 채소류의 감소는 계절적 요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울 수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통적인 수출주력상품들인 소오스류, 인삼류 등의 전반적 약세임
- 아세안국가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 동향

(단위: USD, %)

	2010년 04월	2010년 05월	증감율
말레이시아	4,680,234	3,236,269	-30.9
베트남	15,405,525	11,262,578	-26.9
싱가포르	5,748,093	6,397,781	11.3
인도네시아	6,969,781	8,068,820	15.8
태국	10,519,595	18,613,479	76.9
필리핀	7,116,448	6,632,651	-6.8

(출처: kati.net)

3. 경제 동향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투자회사인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의 자회사인 싱브리지 인터네셔널(Singbridge International)과 중국 지린(Jilin)시는 5월 21일 지린-싱가포르 현대 농산물 식량구역의 설립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 싱가포르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총 1,450 평방킬로미터에 조성되는 동 식량구역에 지린시측은 약 US\$ 227억, 싱가포르 정부는 약 US\$ 160억 등 총 US\$ 387억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발표됨
-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싱가포르 정부의 해외 식량생산기지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동 사업의 서명식에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의 Moh Bow Tan 장관, 그리고 식량다변화기금을 관장하는 AVA를 대표하여 AVA청장을 역임한 GMAC의 Ngiam Tong Tau 위원장이 참석. 1단계 현장조사를 마친 현재, 지린시는 US\$ 1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전체 식량구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년의 기간과 US\$ 165억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린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 식량구역은 내수용으로 옥수수과 대두 등을 생산하게 되며, 수출용으로 쌀, 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등을 생산하여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게 됨. 이미 싱가포르의 Singapore Food Industries는 동 구역에 연간 1백만 마리 생산규모 돼지 농장의 설립을 위한 US\$ 3.2천만의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음. 싱가포르 1위 유통업체인 NTUC FairPrice도 자사 브랜드인 Pasar 브랜드의 성공적 정착을 열거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식품안정성에 관한 우려에 대하여, AVA는 동 식량구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싱가포르의 우수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Reuters, Straits Times 종합)

□ 인도네시아

- 지난 3월 국영 비료회사 PT Pupuk Sriwijaya (Pusri)의 신규 비료공장 건립 발표에 이어, 민간 비료회사인 PT Pupuk Kalimantan Timur (PKT)는 Medan에 건설 중인 비료공장의 추가 증설 계획을 발표함. 2014년 완공예정인 Medan시설의 증설로

PKT는 연산 1백만 톤의 비료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주요 납품처는 국영 농장기업인 PTPN 4 및 PTPN 5를 대상으로 함.

- 국영기업인 Bulog는, 2010년에 쌀 재고 240만 톤 확보 목표를 제시하며, 인도네시아가 해외로부터 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함. Bulog는 현재 100만 톤의 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발표 (ARAM 1)에 따라 올해 4,100만 톤의 쌀 수확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쌀의 수입이 불필요하다고 밝힘
- 농림부 가축국은, 2014년 소고기의 100% 자급 목표에 따라, 현재 국내 수요의 35~35%에 이르고 있는 수입소고기의 물량을 매년 10% 감축 예정이라고 발표. 인도네시아의 육우 두수는 1,180만 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올해 말까지 1,300만 마리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농림부는 5월 22일 호주로부터 수입된 2,516마리의 육우 중 1마리가 사망하고, 2마리가 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검역 과정에서, 수입자 PT SP사의 수입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 되어 농림부는 해당 육우의 전량 반송조치와 함께, 호주 정부에 육우수출의 관리검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모든 육우에 대하여 검역 및 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출처 : Reuters, Antara News 종합)

□ 말레이시아

- 파키스탄 바코치스탄(Balochistan)주의 농업 및 협동조합부 무역사절단이 5월 29일 ~ 6월 2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음. 총 13개의 과일 및 채소 관련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은,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연방 농업마케팅 기구, 말레이시아 과일수출협회, 농림 및 농경부, Agri Food사, Giant, 농민연합회, Selayang 도매시장, 농장 등을 방문하며, 대 말레이시아 과일 및 채소 수출방안을 협의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5월 캄보디아와 ASEAN 대내외의 교역증진 및 투자협력 등에 대하여 회담을 하여, 6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서명을 하였으며, 이 중에는 농업 및 halal 식품가공에 관한 US\$ 10억의 투자계획도 포함이 되었음

(출처 : Bernama, Antara, Asia Pulse 종합)

□ 필리핀

- 필리핀 대법원은 5월 28일, 1988년에 제정된 종합농경개혁법안 (RA 6657) 에 사탕수수농장도 포함이 된다는 필리핀 의회 결정에 대한 2007년의 동의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음. 1988년에 당시 아키노(Aquino) 대통령은 사회정의 및 산업화 구현을 목적으로 종합농경개혁프로그램 (CARP)의 근거가 되는 RA 6657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동 법안은 농촌개혁부, 토지은행 및 토지등록청 등에 의한 쌀, 옥수수 및 사탕수수 농지 및 농장 등의 감독관할 근거가 되었음
- 그동안 설탕생산자연합 (CONFED) 등 설탕농장 7개 단체들은, RA 6657법안 조항들이 위헌이며, 사탕수수는 소규모의 자영 농민 보다는 대규모의 기계화된 농장형 농업을 통해서만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왔음. 대법원은 농장주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RA 6657 법안은 합법적이라며 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6월 3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 아키노 3세가 CONFED의 정회원이라는 사실에 향후 귀추가 주목됨
-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11개 제분업체에 대한 부당이득에 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리라고 발표하자, 제분업체들은 밀가루 가격을 PHP 790/25Kg에서 PHP 740/25Kg로 인하하였음. 제분업체들 또한 빵 가격을 개당 PHP 0.50~1.00 인하하였음. 통상산업부는 국제시세를 반영한 국내 밀가루 가격은 PHP 630~680/25Kg선이 적당하다며, 제분 및 제빵업체들의 추가적인 조치를 공개 요청함
(출처 : Manila Bulletin)

□ 태국

- 태국 정부는 북부지역 농민들의 불만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부지역 22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3개년, THB 20억 (약 US\$ 6천만)의 농경개선계획을 발표함. 국가 쌀 정책 위원회 관할로 실시되는 동 프로그램은 쌀의 2모작 및 대체작물의 재배를 권장하며,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농가는 정부의 쌀 수매가 보호 프로그램에서 배제가 되어, 당근과 채찍의 양면성을 띠고 있음
- 한편, 태국 상업부는 아세안 공동유효특혜관세(ASEAN CEPT)의 발효로, 2010년 1/4분기 대 ASEAN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US\$ 105억을 기록하여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고 발표함. 1/4분기 총 수출액은 약 US\$ 443억으로, 수출순위는 ASEAN (23.7%), 유럽연합 (11.7%), 일본 (10.4%), 미국 (10%)의 순임

- 테스코 로터스(Tesco Lotus)는 영국, 중국,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의 유통망을 통해 태국산 채소, 과일 및 육류의 수출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함. 올해 Tesco사는 신선제품 약 US\$ 2억을 포함한 US\$ 3.6억의 태국산 농산물을 수출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US\$ 7.2억이 목표라고 함. 또한, 인도에도 테스코(Tesco) 입점을 협상 중에 있어, 태국산 농산물의 매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출처 : Bangkok Post, The Nation 종합)

□ 베트남

- 베트남은 식품수출대국으로 부상하려하나, 종자부족, 비료부족 및 국영기업의 비효율 등에 시달리고 있음. 실제로, 쌀 종자는 연수요의 70%인 1.3~1.5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비료는 수요의 60%만을 생산하여 2010년에는 360만 톤을 수입해야하며, 국영기업인 VISERI(양잠), VISALCO(소금), Vinacafe(커피) 등은 누적적자가 이어져, 3월말의 국영기업회의에서 VISALCO의 Vinafood1 통합이 의결되었음
- 베트남 국민들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 및 외국산 제품 선호 등이 작용하여, 베트남은 2010년 1~4월의 기간 동안에 약 US\$ 46.5억의 농산물 및 농산물관련제품을 수입하였음. 베트남 농업농촌부(MARD) 관리는 ASEAN CEPT, ASEAN-중국 FTA 등의 발효로 인한 저가제품의 유입, 그리고 베트남이 부족을 겪고 있는 설탕 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베트남이 수입제품에 대하여 별다른 장벽을 두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수출대상 국가들은 각종 장벽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함
- MARD는 7월 1일 발효되는 조례 25/2010/TT-BNNPTNT 및 26/2010/TT-BNNPTNT를 입법예고 하였음. MARD 농산, 임산, 수산물 검역국은, 동 조례가 유엔(UN FAO)의 국제 코덱스(Codex) 위원회의 식품기준에 기초하여,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미국 등과 같은 엄격한 요구조건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힘.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식품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베트남의 검역관들이 수출희망업체의 시설을 현지조사 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 이후에도 유통과정에서 수시로 검사를 받게 됨

(출처 : VCCI, Saigon Times, The People, Liberated Saigon, VNN, VNS 종합)

4. 기타 업계 소식

□ 영국 식재료 회사에서 마늘 신제품 출시

- 영국계 가공류 및 식재료회사인 Rectory Foods에서, 2년간의 연구 끝에 “혁신적”인 마늘 신제품의 개발에 성공하였다며, 6월부터 영국 판매를 시작으로 조만간 유럽전역에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여러 식품제조 및 식품가공업체들과 거래가 있는 Rectory Foods는, 마늘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여, 지난 2년간 소비자, 케터링, 그리고 식품가공업체들에 공급할 수 있는 마늘제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번에 마늘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밝힘
- 마늘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Rectory Foods에서 출시한 마늘제품은, 온 마늘, 파쇄 마늘, 건조 마늘, 냉동 마늘, 마늘즙 이외에, “혁신적”인 살균처리된 마늘즙 파우치(pouch)제품 등으로, 마늘즙 파우치제품은 살균처리하여 보관기간이 10개월임
- Rectory Foods사는 유통점을 통한 일반소비자 판매, 식품제조 업체 등 이외에도, 인도 및 이태리 등의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민속 및 국제적 식품을 취급하는 전문음식 가공업체, 케터링, 그리고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출처 : Food Navigator)